

韓國小說에 나타난 流移民 문제

— 주로 시베리아와 美洲地域의 移民들을 중심으로 —

이 정 은

〈目 次〉

- | | |
|------------------|---------------|
| 1. 序 論 | 4. 美洲 流移民의 경우 |
| 2. 國內外 流移民의 發生背景 | 5. 結 論 |
| 3. 시베리아 流移民의 경우 | |

I. 序 論

日帝 強占 36년간 한민족은 유례없는 受難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에 대규모로 발생했던 流移民 문제는 바로 이러한 한국인들의 絶望의인 狀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시기의 流移民 문제는 그 이전 朝鮮朝 後期에 발생했었던 그것에 비해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그 전부터 있어 온 내부의 構造的인 矛盾들에 日本 帝國主義의 작용이 개입됨으로써 모순이 한층 더 歪曲되고 深化된 樣相을 띄게 되며, 流移民 문제는 이것이 外면적으로 표출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이 문제는 斷片的이고 靜態的인 아니라 構造的이고 動態的인 側面에서 접근할 때, 그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朝鮮朝 後期 封建體制가 아래로 부터 서서히 崩壞함과 동시에 近代 社會로 점차 變化하는 자연스런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日帝는 自國 資本主義의 矛盾을 解決하기 위해 한국을 침략해 植民政策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正常的인 發展을 禁止당하는 대신 畸形的인 變化를 強要받는다. 이 시기 流移民들은 바로 이러한 狀況下에서 必然的으로 發生할 수 밖에 없었던 時代的 產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국내·외 流移民의 비극은 韓國近代史 및 거기

에 뿌리를 둔 韓國現代史의 集約的 表現이며, 이 문제에 대한 文學的인 論議는 단지 素材主義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韓國文學을 總體的으로 理解하려는 努力과 無關하지 않다는 지적¹⁾은 온당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詩에 대한 尹永川의 종합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문에서 상당히 심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당시 시베리아 地域과 美洲 地域 流移民을 그린 작품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韓國 流移民 小說²⁾의 전반적 양상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고는 그 일련의 작업중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먼저 本考는 2장에서 國內·外 流移民의 發生背景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시베리아 지역과 美洲 地域 移民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당대의 社會史的 背景들과 연관지어 그것이 지닌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때 이들 작품군이 지니는 小說史的 位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1) 참조 尹永川, 「韓國의 流民詩」, 실천문화사, 1987, pp. 10-11

2) 여기서 일단 流移民 小說의 개념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玄圭煥은 「韓國流移民史」(語文閣, 1967, pp. 11)에서 流移民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流民(故郷을 떠나 流離하는 백성.), 2) 移民(1.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은 곳으로 백성을 옮겨 살게 함. 2. 開拓하기 위하여 옮겨 살게 함.) 등으로 「한글辭典」에서 정의한 語義와는 꼭 들어맞지 않으며, 流民은 故郷에서 流離하여 局外로 흘러 나간 것. 移民은 政府에서의 政策的인 移民은 물론 個人으로 地廣人稀의 地로 옮겨가서 사는 것(물론 國外를 말함)도 포함되며, 또 遺民(없어진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까지도 包括해서 뜻하는 총칭이라 한다.

尹永川은 이러한 개념 규정을 토대로 流移民의 개념을 「政治·經濟的 理由때문에 제 고향을 떠나 정치없이 떠돌아 다니며 살아가는 이들」이라 규정하면서 李朝末期에 봉건관료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발생한 유민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은 日帝 強占期에 와서는 상당한 개념의 변모를 겪었다고 했다. 또 그는 國內 流民의 개념규정은 간단하지만, 國外流民 특히 滿洲 流移民의 경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므로 개념규정이 어렵다고 했다. (尹永川, 上掲書, pp. 10-11 참조)

그런데, 여기서 한국어 사전편찬회가 편한 「한국어대사전」(삼성문화사, 1986.)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流浪民(流民, 流民)은 생활이 영락하거나 亂世를 만나거나, 또는 혹심한 誅求를 견디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백성이라 했다. (p. 1268) 또한 遺民은 망하거나 없어진 나라의 백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p. 1270) 그리고 移民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사람으로써, 이는 자주적인 식민정책에 의한 식민과 달리 상대국가와의 협약에 의해 행해진다고 했다. (p. 1310) 그리고 流離는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정치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것(p. 1268)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日帝強占과 國內·外 流移民의 發生背景

朝鮮後期에는 三政의 紊亂으로 인해 農民들이 각지로 流離하여 農業勞働者 내지 都市勞働者化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몰락한 農民들은 자신들의 存立基盤인 土地에서 分離되어 潛在的인 勞働者群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민의 몰락은 정치적인 면뿐 아니라 상품경제의 몰락으로 가속화된다. 17세기 후반 이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 조세를 포함한 기타 收稅 분야에 金納制가 광범하게 보급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금속화폐가 유통된 이후 私債 즉 高利貸의 피해로 몰락하게 된다. 이 몰락 농민의 일부가 소상인이 되든가 日雇勞働者로 전락하여 부역

여기서 移民의 경우는 당시 한국인들이 협약이 없었던 국가의 不法 移民 내지는 勞動移民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전적인 정의와는 맞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제 강점 이전을 본다면 국내의를 流離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내의 경우는 流浪, 그리고 국외의 경우를 流移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 이후에는 여기에다 遺民의 성격까지 겹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流移民이란 개념은 국내를 떠돌아 다닌 流浪民과 국외의 流離民을 포괄하는 성격의 것인데, 여기서 移民의 개념을 사전적인 것보다 포괄해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영천이 정의한 바 국외유민의 복잡한 성격란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해서 범주화하는 데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작품내에서 유이민의 삶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流移民인 作家가 亡命地에서 집필한 亡命地 文學은 어떻게 처리할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姜恩海는 亡命地 文學을 “정치적 이유로 외국에 망명한 문학자들의 문학이며, 이것은 주로 항일 독립투사·정치적 망명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수성이 있다. 문예작품의 동기가 문학활동이라기보다 독립투쟁, 항일활동의 일환으로써 더 비중이 컸던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는 일제 침략이라는 외적 상황에 의한 망명의 발단으로부터 해방 때까지를 하한선으로 잡아야 한다.”고 정의했다. (姜恩海, 「日帝強占期亡命地文學과 地下文學」, 「西下語文」 第3輯, 西江語文學會, 1983. 10. pp. 129-130) 본고는 여기서 망명지에서 이루어진 작품들 중 流移民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역시 流移民 小說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망명지 문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참조 1) 姜恩海, 「國外 抵抗詩歌, 笑來노래에 나타난 認識과 行動」, 「國語國文學」 87號, 1982. 2) 「3·1運動 前後의 民族文學」, 「民族運動叢書」, 言論, 文藝關爭篇, 3) 林榮澤, 「抗日 民族詩」, 「大同文化研究」 第14輯, 成均館大學校, 1981. 6. 4) 최시한, 「망명지소설 ‘남강의 가을’ 연구」, 「배달말」 9, 배달말 학회, 1984. 5) 梁文圭, 「亡命地小說을 통해 본 1910년대 民族運動의 性格」, 「人文學報」 第8輯, 강릉대학교 人文科學研究所, 1990. 2.

또는 농업노동에 고용되었고, 그 상당수는 광산, 수공업장에 賃勞動者로 고용되었다.³⁾ 맹아적 형태로서의 산업노동은 이미 18세기에 나타났으며⁴⁾, 19세기 후반기에는 근대적인 임금노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노동자들은 아직 '半農半勞' 성격과 '勞動組織의 家父長的 形態'를 탈피하지 못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은 종래의 토지 지배관계의 혼란, 관영 수공업의 몰락과 사영 수공업의 급성장 및 이로 인한 화폐 교환경제의 활성화로 특징지어진다. 즉 이 시기에는 과거의 봉건제적 사회 질서가 혼란을 빚음과 동시에 곳곳에서 임금 노동의 형태를 띤 새로운 경제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생산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⁵⁾ 이처럼 조선 후기 사회는 봉건적 사회 질서가 와해되고 서서히 근대적 사회 질서를 갖추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생산 양식은 크게 보아 종래의 그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이었다. 日帝強占 以前까지 農業은 漸進的인 變化를 일으키고 있었고 都市의 資本主義發達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서부터 일제 강점이전까지 한국 사회는 자생적인 자본주의의 맹아적 형태를 키워왔으나, 개항 이후 밀려드는 외국자본의 유입때문에 그 발전이 변형·왜곡되거나 크게 위축당하였다. 한국이 국내 상업 자본의 축적으로 수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 밀려온 외국, 특히 일본의 값싼 자본제적 상품은 국내 수공업 발전의 길을 차단시켰고 단순 재생산의 유지조차 곤란하게 만들어 경제 구조의 총체적인 면에 걸쳐 왜곡을 시켜 버렸다. 이러한 왜곡은 일제 강점 이후 日帝가 실시한 土地調査事業에 의한 植民地 寄生地主制의 確立때문에 극심해지며, 이는 한국민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당시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의 출현은 開港期의 土木·建設·運輸에 종사한 自由勞動者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는 데⁶⁾,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식민지 기생지주제의 확립은 바로 이들을 창출

3) 문윤걸, 『일제 초기 임금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정과 그 존재 형태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사연구회, 「노동계급 형성이론과 한국사회」, 文學과 知性社, 1990. 4), pp. 88-89

4) 金潤煥, 「朝鮮勞動運動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6卷, 政治·經濟史, 古代民族文化研究所, 1981), p. 223

5) 문윤걸, 前掲論文, p. 95

6) 李海朝의 「鬻上雪」(1908. 7)은 당시 都市勞動者의 모습을 단편적이거나 잘 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崔元植의 「李海朝文學 研究」(『韓國近代小說史論』, 倉作社, 1986), p. 75 참조

한 본격적인 계기가 된다.⁷⁾

일제가 한반도 강점 이후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은 단순히 경제란 한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 제국주의는 자국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식민지 한국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며, 이 사업은 바로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쓰였음을 알 필요가 있다.

明治維新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대열에 뛰어난 일본 자본주의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성립·발전의 관전이 되는 原始的 資本蓄積의 기간이 부족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식민지인 한국에서 해결하고자 했다.⁸⁾

일본은 먼저 한국인의 토지를 수탈하여 그 곳에다 자국의 農業移民을 移植시키고자 했다. 농업이민은 우선적으로 자국내의 過剩人口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확고히 하는 역할도 일정부분 지니고 있었다.⁹⁾ 즉, 군대와 경찰력을 통한 군사적 점령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이민들은 이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¹⁰⁾ 또한 이들은 자국내에 부족하던 쌀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동척의 업무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토지를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동척의 역할은 거기서 더 나아가 농업이민을 이주시켜 농업을 경영하게 함으로

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사회발전연구회, 「한국노동자 계급론」, 한울출판사, 1986, p. 17

8) 김석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 전개 과정」(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일본 제국주의」, 文學과 知性社, 1986), p. 81

9) 이러한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토지에서 분리된 한국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값싼 노동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에 노동력을 재공하고 일본이 중국 동북부 지방을 통치·간섭하기 위한 구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한국 이주는 일본의 과잉 인구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자국 인구의 이식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일제에 의한 한국과 일본의 인구이동은 경제적·정치적 수탈의 수단이자, 자체내 사회 모순의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知内原忠雄, 「植民及植民策」, p. 379 이하, 「1920-1930년대 한국인의 만주 이민 연구」(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p. 223의 註25)에서 再引用.)

10) 이들 이민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농가 호수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부의 곡창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多肥多收穫의 집약적 농업인 일본식 농법(후꾸오가 농법)을 식민지에 보급하는 한편, 자신의 지역에서 한국 농민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식민지 지배 기구의 말단 보조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석준, 上掲論文, p. 115)

써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려는 것이었다.¹¹⁾ 이 점은 또한 한국 농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동척이 한국 농민들을 토지에서 분리시킨 것은 단지 그들의 토지를 뺏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는 토지와 농민의 분리를 통해 남부 지방의 과잉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빈번한 소작쟁의를 통해 고양되는 농민들의 반일저항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¹²⁾ 토지에서 분리된 농민들은 우선 1920년대에는 당시 일본 공업계가 필요로 하던 값싼 노동력의 공급원천의 역할을 했다. 또한 이들은 1930년대 일제 후반기에 대륙침략을 위해 실시한 국내 북부지방의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원천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자본주의의 모순해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 이 사업은 우선 한국 민의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한국 전부가 해도 좋을 농촌을 분해시킴으로써 農民의 沒落과 그로 인한 土地離脫을 촉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업은 그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變化를 妨害하여 ‘農業의 經營形態는 封建的 遺風이 그냥있는데 經營基本인 土地는 資本化’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封建的 성격과 資本主義의 성격이 畸形的으로 結合된 植民地的 生産樣式의 성격을 띄게 만들었다.¹³⁾ 즉 이 사업은 종래의 收租權者, 즉 봉건 지배층을 근대적 토지 소유자로 확인해주는 한편, 그들의 收租地를 세습적으로 경작해오던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계약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¹⁴⁾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외형상으로만은 종래의 봉건적 생산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상업자본주의의 성격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¹⁵⁾

11) 김석준, 上揭論文, pp. 92-93

12) 1927-1932년 사이의 소작쟁의의 건수를 보면 남부 지방이 전체 쟁의 건수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토지와 경작 규모, 생활상태의 열악한 상황때문이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소작취소 또는 소작권관계가 51%, 흉작이 14.4%, 소작료 체납, 고율, 비료대 부담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농촌 과잉 인구압박과 그에 따른 경쟁의 격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작쟁의가 격화되고 그 성격이 반일 운동으로 되자 식민지 지배당국은 그 모순을 해외로 전가시키고자 했다. (이형찬, 前揭論文, p. 230)

13) 崔光模, 「朝鮮農民은 왜 파멸하는가?」, 『農民』, 1930. 7. p. 10

14) 문윤걸, 前揭論文, p. 105 여기서 이 시기의 소작농의 성격에 대해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민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일제가 의도했던 농민과 토지의 관계는 식민지적 특수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일제는 직접 토지를 경작하여 생산하는 자를 토지로부터 점점 분리시켜 나가면서도 완전한 분리는 억제시켰다. 당시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이탈되면 특별히 살아갈 방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위해 토지에 계속 매어 있게 되었으며¹⁶⁾, 이것은 결국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를 위시해 그와 결탁한 토착지주들은 식민지적 상품화폐 경제발전 속에서 자신의 존재 형태를 스스로 재편, 적응하여 오직 농업 경영 내부에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 벼 형태의 지주 수입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주 수입을 안정화시키는 지주 착취기구 및 조직을 만들었으며, 농업 내·외부에서 고리대를 통하여 화폐 축적 기능을 다변화해 나갔다.¹⁷⁾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부재지주의 현지 관리인이며 중간

이 시기의 소작농은 이전의 봉건적 부역 농민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생산 수단, 특히 토지와 본원적 결합이 해체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되고, 경제적 강제자 간 존재 있지만 이미 이러한 경제 외적 강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봉건제를 탈각한, 자본주의의 전제로서 존재하는 자유로운 노동력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은 그들의 경작권을 상실하고 소작 계약으로 대체되어, 실질적 권한은 지주에게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작농으로 되어 갔다. (문소정, 「일제하 농촌가족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 변동」, 1988), p. 74)

- 15) 이러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과정은 구한말 왕실의 지주권 강화에서 드러나는데 일제하로 오면서 이것이 심화됨을 볼 수 있다. 당시 지주층은 그들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재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 추구를 지향하는 상업적 존재로 자신의 성격을 변모시켜 나간다. 하지만, 이것이 농업 생산 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력 증대에 보다는 경작 농민층으로부터의 더 많은 잉여 수탈에 근거를 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박명규,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배경」,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일본 제국주의」, 文學과 知性社, 1986), p. 23) 그리고 일제하 농업 및 사회구성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윤수종, 「일제하 일본인 지주 회사의 농장 경영 분석」(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 계급과 사회 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pp. 12-16을 참조할 것.
- 16) 김영근, 「1920년대 노동자의 존재 형태에 관한 연구」-토목·건축노동자를 중심으로-(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 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p. 144
- 17) 문소정, 前掲論文, p. 74

착취자인 악덕사슴의 농간 및 일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허울뿐이고 기형적인 근대화 등은 당대의 현실적 조건들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외에도 당국에 의해 갖가지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각종의 조세와 기타 잡부금 등은 가뜰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이들 농민 모두를 몰락으로 몰고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농촌내 사정의 악화와 함께 농촌이 日本 資本主義의 市場化함으로써 농민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副業으로 생산했던 물품까지도 고가로 購入하게 되어 수지의 압박은 일층 가중되었다. 구조적인 조건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만성적인 가계수지의 악화에 홍수,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집안의 불상사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경우 농민들은 빚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어 결국에는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中農이나 自作農, 自・小作農들은 大地主에게 이중, 삼중으로 착취당함에 따라 급격히 沒落하여 小作農, 그 중에서도 貧農 내지는 窮農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제하에서 중간계층은 급격히 몰락하고 대신 東拓의 비호를 받은 日人 移民 地主 및 小數의 親日的인 韓國地主, 그리고 小作農과 같은 빈부의 양계층만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¹⁸⁾

이상과 같은 경로를 거쳐 몰락한 농민들은 그 일부가 農業勞動者로 농촌에 남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빈궁과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都市로 移住하게 되었다.¹⁹⁾ 이들은 자연스런 산업발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勞動力의 供給過剩現象을 초래했다. 이들 有休勞動力은 결국 都市貧民, 郊外の 土幕民이 되어 지게꾼·행상·기타 잡업직에 종사하면서 自由勞動者群을 形成하게 되었다.²⁰⁾ 그 외의 많은 離農民들은 산으로 들어가 火田民

18) 토지조사가 종료된 1918년 현재 畓地의 64.6%, 田地의 42.6%가 소작지가 되고 자작농은 19.7%, 자작 겸 소작농과 소작농은 합계 77.2%에 달했다. 반면에 전 경작지의 약 반을 불과 3%의 지주가 소유하는 비정상적인 토지소유관계가 확립되었다. (金雲泰, 「日帝 植民地 統治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6卷, 政治・經濟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1, pp. 79-80 참조)

19)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살 길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 당시 이농의 주된 경향이라 하겠는데, 이와는 달리 부농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로 공과금 및 기타 제부담이 도시는 지나치게 가벼운데 반해 농촌은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데 원인이 있었다. 이들이 빠져 나감으로써 농촌의 몰락은 점점 더 가속화 되었다. (李勳求, 「農村人口 都市集中의 原因」, 「朝光」, 1938. 4, pp. 72-73)

으로 변모하거나 國內를 流離, 乞食하게 되었으며²¹⁾, 또, 日本, 하와이, 멕시코 등으로 거의 노예무역에 준하는 값싼 임금을 받고 팔려 가게 되었다. 다른 일군은 滿洲 내지는 시베리아 지방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여기서 日帝下의 勞動者가 沒落한 農民의 또 다른 表現임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된다.²²⁾ 또한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일제하 한국민의 빈민화와 국내·외의 유민화 현상이 그들의 게으름이나 무지한 탓에 있기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시베리아 流移民의 경우

現代小說에서 國外 流移民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당시 流移民들의 移住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듯, 배경을 滿洲나 日本地域에 두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 다른 지역의 流移民들을 그린 작품은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 수 이민들이 건너간 시베리아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李海朝의 新小說「巢鶴嶺」, 李孝石의 「露領近海」(「朝鮮講壇」, 1930. 1, 「四海公論」, 1937. 2에 再收錄), 韓雪野의 「平凡」(「東亞日報」, 1926. 2. 16-2. 27), 崔曙海의 「그 刹那」(「時代日報」, 1926. 1. 4), 白信愛의 「겨래이」(「新女性」, 1933. 1-2) 등이 이를 다룬 작품이다.

新小說「月下佳人」(「每日申報」, 1911. 1. 18-4. 5, 普及書館, 1911)에서 멕시코 이민을 다룬 李海朝는 「巢鶴嶺」(「每日申報」, 1912. 5. 2-7. 6, 新舊書林, 1913)에서 구한말의 露領移民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노령이민의 비극적 삶을 다룬 白信愛의 「겨래이」류의 작품의 선구가 된다.²³⁾ 이 작품은 몰락한 항반의 아들 강한영이 露領 秋風에 농촌 노동자로 떠난 다음 그 가족이 그를 찾아가는 과정을

20) 1)姜萬吉, 「日帝時代 貧民生活史研究」, 創作社, 1987, pp. 237-245,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사회발전연구회, 前掲書, pp. 25-26 참조

21) 林炳哲은 1931년 당시의 國內流浪民 實態를 各道別로 수치를 조사했다. 그 상세한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체적인 수준에는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1個郡에서 수천에서 수만호의 유이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林炳哲, 「朝鮮農村은 이것을 要求한다」, 「東光」, 1932. 8, p. 12 참조)

22) 金雲泰, 前掲論文, p. 256

23) 崔元植, 「李海朝文學 研究」(崔元植, 前掲書), p. 144

그럼으로써 당시 노령이민의 참상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극히 드물고 新派調 活劇으로 시종하면서 親日的 傾向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되지만²⁴⁾, 이에도 불구하고 후일 큰 흐름을 이루는 流移民 小說의 先驅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²⁵⁾

李孝石의 「露領近海」는 그의 주된 경향인 異國趣味가 잘게 드러난 작품으로, 노령 이민 그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동해에서 노령으로 항해하는 승객들의 모습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민의 모습을 볼 수는 있다.

두층으로된 삼등선실은 층우이나 층아래가 다 만원이다.

오래지않은항해이지만 동요와괴롭에지친 수많은얼골들이 생기를널고 떡넉갈치 시들었다.

누덕감발에 머리를질끈동이고「돈벌너」가는 사람이었다. -돈벌기조타든 「부령청진가신 랑군」이 이제또시다(또 다시-필자주)「돈벌기조흔」북으로 가는것이다. 미주 동부사람들이 금나는 서부캘리포니아를 꿈꾸듯이 그는 막연히「금덩이구는」북국을 환상하고 있다.

「부자도없고 가난한사람도없고 다같이살기좋은나라」를 막연히 차저가는사람도많다. 그중에는「삼년동안이나한넉두넉모아두었든동전」으로 마즈막뻬삭을 삼어서 떠난 오십이넘은 로인도있다.

「서울로공부간다 길떠난지 열세해만에 아라시에가서객사한」아들의 뼈를 추리러 가는 불상한어머니도있다.

색달나 옷넉고 분바른 젊은녀자는 역시「돈벌기좋은항구」를 차저가는 항구의 녀자이다.²⁶⁾

일경에 쫓기는 사회주의자인 듯한 청년과 그를 따라온 일본 형사, 식당 뽀이와 노령으로 밀항기 위해 선실바닥에 숨은 그의 친구, 그리고 그 곳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실러가는 하층 유이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위 부분은 당시 청진항등을 통해 極東 露領으로 이주하는 이들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고 있다. 농민의 딸에서 술집 작부로 전락한 듯한 여성, 농민에서 '부령청진 가신 랑군'이 되어 다시 노령으로

24) 참조 崔元植, 上揭論文, pp. 144-145

25) 崔元植, 「新小説과 勞動移民」(崔元植, 前掲書), p. 285

26) 李孝石, 「露領近海」, 「西海公論」, 1937. 2, pp. 149-150 이후 부러는 페이지 수만 표시함.

일확천금을 찾아 떠나는 자유노동자의 모습, 계급없는 노농 러시아를 찾아 막연히 떠난 이의 모습 등에서 당시 이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이민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사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포함해 이 작품이 그다지 큰 실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본적으로 李孝石이 견지하고 있는 歷史에 대한 無關心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그는 동반자적 경향의 소설을 발표하긴 했으나, 1933년 「豚」을 발표한 이후 사회에 대한 관심을 멀리 하면서 性과 자연, 이국취미 등에 대한 작품으로 시종일관한다.²⁷⁾ 이 작품의 경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그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질적으로 이국취미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역사에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러한 문제는 한갓 흥미거리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사회주의자인 듯한 청년을 쫓는 일경의 태도를 그린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의명령이니 쫓아만오면그만이지 바둑바둑에쓰며 직무를다할것은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한편구석에서 은근히 었더케하면 배를좀볼너볼까 하는생각에똑같이 취하고있다.

유쾌한취흥과 「유쾌한」 생각에 그들은 마음껏 질거웁다.²⁸⁾

목숨을 걸고 쫓고 쫓기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유쾌하고 한가한 것은 아마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李孝石에게 당시 시베리아 이민에 대한 역사적 감각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단지 이 작품은 李孝石의 흔한 이국취미를 보여주는 작품²⁹⁾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7) 참조 1) 김혜옥, 「李孝石 短篇小說의 抒情的 特質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2) 나병철, 「이효석의 서정소설 연구」, 「연세어문학」 제 20집, 1987. 하지만, 鄭明煥이나 金允植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작품에서 역사나 역사의식이란 애시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1) 鄭明煥, 「위장된 순응주의」, 「創作과 批評」, 1968. 겨울, 2) 金允植, 「모더니즘의 精神史的 基盤」, 「文學과 知性」, 1977. 겨울.)

28) p. 145

29) 이효석의 이러한 경향은 각 논자들에 의해 누차 지적된 것인데, 특히 「哈爾濱」(「文章」, 1940. 10)과 「奇遇」(「朝鮮之光」, 1929. 6) 등에서 잘 나타난다.

崔曙海의 「그 刹那」는 시베리아 勞動移民을 그린 작품으로 짧은 소품에 속한다.

나는아홉해전에서백리아어떤금광에가서돌아단인적이었었다.

그새소물남짓한젊은 안해를 남의집구석에버려두고 고국을쳐난것은돈을벌자는작정이 었다. 우리함경도서는 서백리아해삼위쯤은문빗출입하듯한다. 장사하는사람은달달이다니 고말버리나하는사람은봄에갔다가 가을에돌아온다. 그러케다니는사람을함경도서는강툼(?)꾼이라 부른다. 나도집쳐날때는강툼꾼모양으로어썩금광에가서얼마간벌어가지고가 을에돌아올작정으로쳐났다.

‘나’의 행적은 당시 함경도의 전형적인 ‘出嫁勞動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중국 신동성출신의 출가노동자의 틈바구니에 끼어 농업분야와 같은 위치를 갖지 못하였다.³⁰⁾ 1863년 이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계절출가이민은 연해주 개발에 필요한 러시아 정부의 노동력 충원정책으로 인해 “극동 노령의 소비에트화가 구체화된” 1922년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연해주에 대한 식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개발에 소요되는 인적 자원을 충당키 위해 한국인을 유치하고자 했다.³¹⁾ 당시 한인 이민들은 90%정도가 농업에 종사했으며 나머지 10%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중 노동이민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광산노동이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 형태상 대개 독신 노동자들이었다. 근대적인 공업의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한 沿海州에 있어서 이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었던 직장은 鑛業, 더구나 砂金鑛業이었다. 시베리아 가운데서도 이를 난 사금광지대인 우수리지방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1891년 이후부터 한인 이민을 고용하기 시작했다.³²⁾

이때문에 사금채취에 동원되었던 한국인들은 1892년에 불과 470여명이던 것이 1906년에는 7300여명에 달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東方經略 정책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인 이민들에 대해서 환영·배척의 태도를 되풀이 했다.³³⁾ 굳이 이러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한인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이 낮은 것이

30) 玄圭煥, 前掲書, p. 863

31)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章文閣, 1973, p. 55

32) 高承濟, 上掲書, p. 64

33) 러시아 정부의 한인 이민들에 대한 배척은 다른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이기도

어서 돈을 모을 만큼의 생활은 되지 못했다. ‘나’는 ‘해삼위를지나고소학령을지내고 허발포를 지나 금광으로 가지만 ‘처음계획과는다툼’린 것을 알게 된다. 벌이는 ‘그 날그날의밥값도 되나마나하고’ 그나마 금이 잘 나오지 않아서 ‘빈주먹을불끈쥐게’될 뿐이다.

러시아 내에서 한인 이민의 고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계속 대두되었으나 그들의 저임금과 殖民에 대한 매력때문에 완전히 배척하지는 못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러시아인들에 비해 거의 4배 이상 적은 임금을 받았던 사실이나³⁴), 당시 러시아 측에 “인내심이 대단히 강하고 순종성이 풍부한 염가의 노력”³⁵⁾

했지만, 근본적으로 자국의 문제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었다. 금광이 많았던 연해주, 흑룡강 지방의 금광에서 한·청인의 고용에 대한 찬·반양론은 수시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청·한인의 저임금으로 고임인 러시아 노동자들이 이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척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은 러시아에의 동화노력과 근면성 및 극동지역의 식민의 미진한 상태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청인과 달리 한인의 러시아화를 추진한다는 의견 하에 배척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02년에는 러시아 관원들은 한인 이민들이 사금광에 고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각 사금장마다 러시아인의 고용비용을 50%로 의무화하고 한국인의 고용비용을 25%로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인 이민이나 중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운테르베르겔이 1905년 아무르연안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한층 심화되었다. 그는 한인 이민들의 권리를 심사했고 그들에게 국적을 주지 않았고 금광으로부터 해고하였다. 그 뿐 아니라 1908년에는 한국인 이민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금장의 조업율을 축소하는 조치까지 내렸다고 한다. (高承濟, 上揭書, p. 64)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러시아인의 생활을 압박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켜 금광업자 뿐만 아니라 현지 답사대 및 지상을 통한 한인 배척반대의 소리와 노령 극동지방의 농경 및 개척 또는 금광노동이나 철도공사 노동 기타에 있어서 이들 한인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게 된다. 당시 한인 옹호론의 대표격인 『노우오에·우레노미야』지는(1911.

1. 18)『연·흑룡지방에서의 조선인의 식민』이라는 논설에서 한인 노동력의 저렴함과 풍부한, 자국 노동자들의 결핍, 한인들의 이용가치, 인접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을 예로 들어 한인을 고용하는 것이 이득임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1911년 3월 23일부터 1910년 7월 4일에 발포된 외국인 노동자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철폐되었다. 그리고 연·흑룡지방의 금광에 노동하는 조선인에 대하여 가급적 관대한 조건으로 귀화를 허가할 권한과 연·흑룡총독에 대하여 임시 금광노동자로 하여금 한인을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권능을 부여하였다. (참조 玄圭煥, 前掲書, pp. 788-793)

- 34) 당시 오지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은 하루 五留를 받았으나 한인은 一留 五十哥를 받았으며, 또 도시 부근에서는 러시아인이 2留 五十哥내지 三留를 받았으나 한인은 七十哥 내지 一留를 받았다.

이라고 평가받았던 것으로 보아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³⁶⁾ 1917년 이전 沿海州에는 한인노동자들이 금광, 광산, 기타 건설 지역에서 별다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싼 값에 온갖 노동을 했다 한다.³⁷⁾

그이듬해는 서베리아에전쟁이터져서교통이아주막혔다. 봄이면들어오는 고국사람들은 그림자도볼수없고 다만이골저구석에서겨울난사람들만모혀들었다. 그런중에그해에도급이 잘나지안했다.

한인 이민 광산종사자들은 주로 사금광에 종사했는데 주별로 보아서 黑龍州가 으뜸이고 沿海州가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⁸⁾ 革命 前 시베리아 금, 석탄광에서 노동하는 자는 일반 이상에 달하였으나 혁명기에 들어서서는 지방의 질서가 문란해서 광업은 대부분의 休止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인 이민들은 상당수가 노동자 생활을 청산하고 농업노동자로 전환하였다.³⁹⁾ 더우기 러시아 혁명후에는 정치 사회적인 혼란으로 금광업이 부진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⁴⁰⁾

'나'가 겪는 현실은 바로 이러한 혁명기의 상황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 이민들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고는 있으나, 소품이라는 형식적 한계로 시베리아 이민들의 전형적인 삶을 그려내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1907년대 당시의 광부의 임금은 갱부내 인부가 1개월 30류 내지 80류로서 식료는 자기가 충당하였다. 그 밑에서 일하는 하급노동자의 임금은 월 25류 내지 50류였으며 채굴고에 따라 다소의 돈이 더 지급되었다. 당시 한인들의 일일 평균지출은 60가 내지 70가였고 매월 생활비가 17류에서 26류까지 었다고 하며 바로 이러한 점때문에 일일 40가를 소비하고 월 12류밖에 소비하지 않는 청인에 비해서 러시아에 유익한 것으로 한인배척 반대론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참조 玄圭煥, 上揭書, pp. 867-870)

- 35) 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篇(內山彼得譯), 『露領極東の農業と植民問題』(露亞經濟調査叢書), 大阪毎日新聞社, 1926, p. 31(金俊煥, 金昌順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권, 청계연구소, 1987, p. 60에서 再引用.)

- 36) 金俊煥, 金昌順, 上揭書, p. 60

- 37) 고송무, 『조선의 한인들』-고려사람-, 이론과 실천, 1990, p. 27

- 38) 玄圭煥, 前揭書, p. 867

- 39) 玄圭煥, 上揭書, p. 867

- 40) 玄圭煥, 上揭書, p. 868

韓雪野의 「平凡」은 「東亞日報」의 현상모집 당선작으로 만주에서 씌어진 작품인데⁴¹⁾, 함경도 출신 인텔리 여성 Y의 삶을 그리고 있다. Y는 부모때문에 애정 없는 남편과 결혼하지만, 같은 학교의 동료교사인 유부남 M과 사랑하게 된다. M은 현실적인 장애를 깨닫고 동경으로 떠나며, Y는 이 때문에 도덕·제도·법률 등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고국을 떠난다. 러시아로 가려다 해삼위부근의 소학교 선생으로 주저앉게 된 Y는 거기서 지금의 남편 D를 만나게 된다. 그 역시 그녀와 같은 생각으로 망명 도주해온 사람이다. 그들은 서부로 들어 갈 기회를 노렸으나 실패한다. 해삼위 조선인 간의 암투가 치열해지자 이를 피해 잠시 간도로 피난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혐의를 쓰고 영사관에 체포되어 조선으로 압송된다. Y는 곧 방면되었으나 D는 혐의가 있어 석달동안 취조를 받은 후 무혐의로 방면된다.

이 작품은 당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또 다른 이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주 동기가 개연성을 잃고 있으며 상당히 관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⁴²⁾

白信愛의 「꺼레이」는 시베리아 농업이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순이의 아버지는 수년 전에 시베리아 지방에 건너와 농사 터를 얻어 살았으나 얼마 전 병으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순이는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뼈를 찾으러 시베리아로 건너 오지만 바로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감금된다. 순이네가 갇힌 감옥에는 '꺼레이'들이 방이 터지게 들어 차 있다. 이들은 모두가 순이 아버지와 같이 땅을 보고 국경을 넘어 온 이민들이다.

이 작품의 배경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에서 국경이 봉쇄된 1922년 이전

41) 서경석, 「韓雪野論」: 한국 경향소설과 '귀향'의 의미 (김윤식, 정호웅編, 「한국 근대리얼리즘 작가연구」, 文學과 知性社, 1988.), p. 168

42) 이전에 비해 한인들의 이주는 19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전의 것과 함께 새로운 동기가 하나 더 추가된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이민이 그것인데, 애국지사들의 경우 일제 관헌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는 대상 지역으로 연해주가 적합하였던 것이다. 1905년 을사 5조약이 체결되자 많은 애국지사들은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연해주 의병운동은 만주와 함경도 및 평안도 등지의 여러 의병운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한-러 국경은 자연 일제의 경제대상이 되었다. 물론 애국지사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 이민들의 경우도 일제에 의한 수탈에 의해 한층 더 가중된 상황을 피해 그 곳으로 건너간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고송무, 前掲書, p. 13, p. 26)

43) 玄圭煥, 前掲書, p. 795

까지로 보인다. 레닌혁명으로 1922년부터 극동 러시아령의 소비에트화가 구체화되자, 일제는 혁명의 파급을 우려해 국경을 삼엄하게 봉쇄했고, 쏘련 역시 마찬가지로 여서 이후 가족이주, 집단이주의 형태를 한 한인 이민의 러시아령 왕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17년의 혁명 바로 이후 수 년간 극동지방은 일본군의 출병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러한 혁명초기는 공산정권의 위령이 극동에서 통용되지 않았다.⁴³⁾ 혁명을 알리 없는 무지한 농군인 순이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때에 ‘돈 없는 사람에게도 토지를 꼭 나누어 준다는’ 이전 제정 러시아의 정책을 듣고서 ‘저 혼자 먼저’ 건너 온 출가이민이었다.⁴⁴⁾

방안의 사람들은 모두 세 집 식구로 나뉘어 있는데 도합 열 아홉이었습니다. 늙은이, 노파, 젊은 부부, 총각,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이 모녀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함경도 사람이며, 고국에는 바늘 한 개 꽃을 만한 자기들 소유의 토지라고는 없는 신세라 공으로 넓은 땅을 떼어 농사하라고 준다는 그 나라로 찾아온 것이었는데, 국경을 넘어서자 xxx에게 붙들려 순이들처럼, 감금을 당했다가 이리로 끌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⁴⁵⁾

이러한 생각은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순이네와 같이 붙잡힌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나이는 군인들이 ‘국경 밖에 쫓아내면’ 몇 번이고 돌아와서 ‘사오 일갈이(四五日耕) 썸 땅을 얻어 놓’겠다고 다짐한다. 당시 노동 러시아의 사정을 알 리 없는 무식한 농군이기에 그의 희망은 가능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고향에 돌아 간들 밭 붙일 곳이라고는 땅 한 쪼각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순이네나 이들은 본래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나 ‘잘못되어 있던 토지를 다 남의 손에’ 잃어 버린 사람들이거나 원래 토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이들

44) 러시아 정부의 한인 이민정책은 크게 招撫期와 制約期로 양분되는데, 전자가 1884년까지이고 후자는 1884~1917년까지이다. 물론 이러한 큰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면에서 이 지역의 정책은 중앙의 방침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었고, 이 지역 총독 개개인의 판단이 정책을 좌우해 일관성을 갖기가 어려웠다. 러시아 정부는 한인 이민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官有地의 무단점유를 묵인했으며, 영구적으로 人頭稅, 地租를 면제해 주었다. (참조, 玄圭煥, 上揭書, pp. 787-788)

45) 金潤植 편, 『白信愛小說集 꺼래이』, 朝鮮日報社, 1987, p. 48 이후부터는 페이지 수만 표시함

이다. 이는 조선조의 關北地方에 대한 世襲的인 差別⁴⁶⁾ 및 日帝에 들어와서 한층 가혹해진 수탈에 의한 것이다. 자·소작농에서 소작농 그리고 나중에는 농업 노동자의 수준으로 내몰린 그들은 가까아서 토지와 돈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는 말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시·농촌지역을 불문하고 러시아 국적이 없는 한인 이민들은 농지조성에만 동원될 뿐 좀처럼 정착할 수가 없었다.⁴⁷⁾ 1905년에 한인 이민이 신규 입주한 러시아 농민들에게 자신이 개척한 농토를 약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니콜라예프스크지방의 이민국장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건의 했었으나 용납되지 않았다.⁴⁸⁾ 당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농민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46) 이 지역은 조선정부의 전통적인 差別政策과 隔絕主義가 대대로 적용되어 왔던 곳이다. 원래 척박한 자연조건때문에 농업생산의 부진, 또는 天災로 인한 생활위협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이 곳을 벗어나고자 했고, 정부의 경제발전 억압과 관리 및 지배계급들의 주민들에 대한 가렴주구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작용을 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私刑과 재산몰수의 준엄한 私越國禁을 범하면서 까지 필사적으로 국외탈출을 행했던 것은 생존권을 위해 국외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처절한 자연적·인위적 형편에 의한 것이었다. (金俊樺·金昌順, 前掲書, p. 35) 이러한 이들의 처절한 생활상은 18세기 후반 慶興府使로 있었던 耳溪 洪良浩가 수집한 민요를 번역한 漢詩에서 잘 드러난다. (참조 성범중, 「이계 홍양호의 북새문학에 대한 일 고찰」, 『冠嶽語文研究』 第3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4) 또한 金台俊은 高麗에서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경제 제도로 인한 백성들의 流離와 民怨에 대한 詩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실상을 찾아볼 수 있다. (참조 金台俊, 「李朝末의 民怨詩」-漢詩만으로-, 『學燈』, 1934. 8)

47) 高承濟, 前掲書, p. 62 귀화인에 대해서는 동화의 대가로서 토지를 무상분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귀화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임대료를 거두어 들었다. 1910년에 블라디보스톡 시에서는 한인에게 1데샤치나당 6루블 내지 12루블의 임대료로서 330데샤치나를 대부하였고, 니콜스크 우수리스크에서는 501데샤치나, 하바로프스크에서는 1데샤치나당 50루블로서 30데샤치나를 각각 채소밭으로서 대부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로부터는 해마다 거류세도 징수하였다. 이 거류세는 비귀화인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징수하였다. 1992년에 이르기까지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 가운데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3천여호에 불과한 데 이는 사실상 1917년 2월 혁명까지의 토지취득자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1922년 말까지 연해주를 포함한 한인의 토지취득자는 어림잡아 전 이주민의 2할 미만이었을 것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식민지 정책이 한인에 대한 토지분여에 인색하였던 것은 역시 자국민 식민의 이익을 두둔한 데 있었다. 한인에게는 교통이 불편하고 개간이 비교적 곤란한 토지가 분여·대여되는 것이 일반적 형편이었다. 이것은 소작보다는 지주가 되겠다는 물질적 면에서 자국을 주어 러시아의 한인 귀화정책을 유효하게 전개시켰다.

48) 高承濟, 前掲書, p. 62

한인 이민이 개척한 영토를 몰수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 농민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농작물·農舍 및 기타 시설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귀속시켰다는 것이다.⁴⁹⁾ 한인 이민들은 러시아 농민들에게 자신들이 개척한 농토를 빼앗긴 대신 소작인의 처지에서 경작을 하게 되었다. 그 소작조건은 한국의 경우에 못지 않는 가혹한 것이었으며⁵⁰⁾, 또한 각종 세금이 국외추방의 위험 아래 한인들에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한인 이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경작 이외의 경지를 임대하던지, 아니면 농업 노동자로서 출가를 하거나 부업을 하던지, 그것도 안되면 생활을 수입에 맞게 절약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⁵¹⁾

이러한 상황은 제정 러시아가 노동자·농민의 조국을 표방하는 소련으로 바뀐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정부 역시 자국민을 우선시 했으며, 한인 이민들이 일인들의 간첩노릇을 할 것으로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⁵²⁾ 또한 얼마 동안 이 지역

49) 高承濟, 前揭書, p. 63

50) 1917년 米作이 시도되기 전까지는 자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지부족, 관유지 임대금지, 황색인에 대한 압박과 배척때문에 한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으며, 이것은 경제면에서도 심한 타격을 주었다. (玄圭煥, 前揭書, pp. 835-836) 1909년에는 한인 이민들이 소작하는 경지 면적이 1만 5천 데사치나(1데사치나=1106町步)였다고 한다. 러시아인 지주 밑에서 소작을 하는 경우에 한인 이민들이 지불해야 했던 소작료로는 경지 1데사치나당 10내지 20布度(1布度=4368貫)의 곡물을 제공하거나, 10-18루블의 현금을 지불해야 했다. 아니면 매 소작농가당 4-5루블을 戶別稅처럼 지불했고, 목초를 재배했던 경우에는 지주에게 그 절반을 제공했다. 이밖에 도로 및 교량을 부설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주와 균등하게 부담하였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던 소작조건이었으나 한인 이민이 러시아 지주로부터 토지, 종자, 농구, 우마 등을 임대받아 경작한 연후에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제공하는 소작조건도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소작조건은 농토가 협소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파중한 소작료였다. (高承濟, 上揭書, p. 63, p. 64)

51) 玄圭煥, 上揭書, p. 849

52) 日帝는 이주 한인의 동정에 세심한 관찰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기회 있을 때 마다 회유하여 자기 세력으로 부식시켰다. 때로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러시아가 한인의 행동을 규제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親日勢力을 침투·포섭하여 이주 한인의 성장을 막거나 분열시켜 친일본화에 힘써 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한 미온적인 대책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일제는 항일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1920년 4월 5일에 시베리아 출병 일본군을 동원해 블라다보스톡에 있는 新韓村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는 이 지역이 국내의 독립운동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인이 일본간첩 역할을 할 것으로 의심한 러시아 정부는 운테레브토겔 총독 때부터 한인을 탄압하는데, 이는 1930년대에 스탈린이 한인들을 중앙 아시아로 이주시키는 한 원인이 된다. (玄圭煥, 上揭書, p. 899)

에는 소련정권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미칠 수 없었던 때였던 탓도 있었다. 소련이 비록 노동자·농민의 조국을 표방하고는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이들보다는 '컴뮤니스트'가 중요했던 것이다.

“아이구 말 많소 아무래도 우리 내지 땅이 좋습두마, 여기 오니 ‘얼마우자’ 미워서 살겠습디?”

하고 사나이를 반박하였읍니다.

‘얼마우자’. 이것은 조선을 떠난 지 몇 대(代)나 되는 이나라에 귀화(歸化)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니 그들은 조선 사람이면서도 조선 말을 변변히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마우자’(露人을 이르는 말)도 되지 못한 ‘얼’인 ‘마우자’란 뜻이었습니다.⁵³⁾

순이는 자신들을 데리고 온 병사가 동포인 ‘꺼래이’임을 알고 그에게 도움을 기대하지만 얼마간의 동정심만을 얻을 뿐이다. 그는 동족이긴 하지만 이미 귀화해 러시아화한 ‘얼마우자’⁵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이민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얼마우자’도 알고 보면 그들과 같이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어 온 이민들의 후예에 속한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역시 살 길을 찾아 넘어 왔지만, 토지분배와 같은 차별정책 때문에 아니면 일제가 조국을 강점해 정신적 기반을 상실함으로 써⁵⁵⁾ 어쩔 수 없이 귀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沿海州에서 일본을 내쫓고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한인 이민들이 많은 기여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연유하는 것이다.⁵⁶⁾ 여기서 동족간에 같은 이유로 이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문제

53) p. 49

54) 이지택, 「시베리아의 3·1운동」, 『月刊中央』, 1971. 3, pp. 193-194 (고송무, 前掲書, p. 48의 註) 34에서 再引用.) 함경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이미 금세기 초부터 ‘마우재’라 부르고 있다. 이 말은 아마도 중국말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1900년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사건 때 서양인들이나 서양문물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타마우즈’(‘제 1마우재’로 ‘서양사람’을 일컬음), ‘얼마우즈’(‘제 2마우재’로 ‘중국 기독교인과 서양일을 보는 사람’을 일컬음), 그리고 ‘산마우즈’(‘제 3마우재’로 ‘서양물건을 쓰거나 서양사람티를 내는 사람’을 일컬음)라 불렀다. 즉, ‘털이 많이 난 사람’이란 뜻에서 왔으며 서양사람을 경멸해 부르는 말이다.

55) 高承濟, 前掲書, p. 71

56) 高송무, 前掲書, p. 16

때문에 대립하게 되는 민족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 그 냉혹한 찬바람에서 시달리며 세 사람은 추방의 길에 올랐읍니다……中略……。 쫓겨 가는 가엾은 우리들의 걸어간 자취 위에 다시 발을 옮겨 디딜 때 자국마다 파눈물이 고여 있었읍니다.

……中略……그 노래 소리는 찬 벌판을 지나 산 너머로 사라지며 쫓겨 다니는 우리들을 조상하는 것 같았읍니다.

……中略……

어머니와 순이에게 양팔을 부축받은 할아버지가 문득 발길을 멈추더니 아무 소리 없이 스프르 쓰러졌읍니다.

그 때 천군만마같이 시베리아 넓은 벌판을 제 맘대로 달려온 바람결이 쇠, 싸리 숲을 흔들며,

“순이야, 울지 말고 일어서라.”

고 명령하듯 소리쳤읍니다.⁵⁷⁾

결국, 다른 이민들이 쫓겨간 며칠 뒤 순이네 일가도 역시 고국으로 쫓겨나게 된다. 아버지의 유골을 찾으러 왔다가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순이네 일가는 쫓겨나는 도중에 다시 할아버지를 잃게 된다. 「꺼래이」는 당시 고국에서 버림받고 시베리아 이민을 떠났지만 다시 쫓겨나는 한인 이민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순이네 일가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순이네 일가로 대표되는 당시 시베리아 한인 월경이민들의 비극적 사건을 여성을 연상케하는 화자의 감상적인 어조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나 화자의 어조가 지니는 감상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있는 이유는 주인공인 순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리고 여리지만 때로는 당돌하리 만치 강인한 순이의 모습에서 결코 비극적이지 않은 많은 미래를 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지막에 할아버지를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잃고 선 순이를 그리는 위 부분에서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의 순이의 강인한 모습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주면서 앞날에 대한 전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57) p. 54

58) 韓黑鵬의 「黃昏의 悲歌」(「白光」, 1937. 5), 「호텔 콘」(「東光」, 1932. 6), 任英彬의 「어느

4. 美洲 流移民의 경우

美洲 地域의 이민을 다룬 작품 역시 시베리아 이민을 다룬 작품의 경우처럼 여타 지역의 그것을 다룬 작품에 비하면 극소수에 속한다.⁵⁸⁾ 이러한 작품의 예도 역시 新小說에서 먼저 찾을 수 있다. 구한말 정치·경제적 동기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이민을 그린 작품은 樵雨堂主人 陸定修⁵⁹⁾의 「松籟琴」 上卷(博文書館, 1908)과 李海朝의 「月下佳人」(普及書館, 1911)이 있다. 전자는 하와이 이민을, 후자는 멕시코 이민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하와이 이민을 다룬 「松籟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품의 배경은 러일전쟁 중인 1904에서 1905년 사이로 주사 김경식 가족의 고난을 그리고 있다. 그는 1903년 하와이로 떠났고 박씨부인과 딸 계옥이, 아들 한봉이가 그의 편지를 받고 1904년 원산에서 떠나 부산, 고오베(神戸)를 거쳐 하와이로 가기 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주사는 초기 일본 유학생으로 甲申政變 이후 甲午更張 때 관직을 한 인물로 서북양반층의 인물로 짐작된다.⁶⁰⁾ 그는 甲午更張의 난리를 피해 원산으로 오는데 자기 자본이 없어 하와이 이민을 결심하게 된다.

聖誕祭」(「文章」, 1941. 2), 「사랑의 모험」(「文章」, 1941. 1), 宋影의 「白色女王」(「朝鮮之光」), 1929. 11, 1930. 1) 등은 공통적으로 미국 유학생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은 당시 流移民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59) 陸定修는 培材學堂 출신으로 학생운동의 호시로 평가되는 協成會를 거쳐 기독교 청년회(YMCA) 운동에 종사한 인물로서 독립협회운동 속에서 성장하여 愛國啓蒙期에 활약한 기독교 청년운동의 원조이다. 그는 「松籟琴」이외에 3편의 짧은 短篇小說을 남기고 있으며, 후에 그가 쓴 「開發會社 進出史」四十年前 옛 時代의 南方進出秘話-, (「大東亞」, 1942. 3), 「상투짜고 學校갈매」(「朝光」, 1943. 9) 등의 논지를 볼 때, 친일적인 자세로 변모한 듯 하다. 육정수의 작품 및 생애에 관한 자료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1)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5, p. 5 2)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正音社, 1978, p. 55 3) 崔元植, 「帝國主義와 土着資本」-「松籟琴」小考, 崔元植外, 「전환기의 동아시아문학」, 創作과 批評社, 1985

- 60)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崔元植이 상세하게 밝혀 놓고 있으므로, 따로 인용하지 않은 부분은 그의 줄거리를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참조 崔元植, 「新小說과 勞動移民」(崔元植, 前掲書)

괴년을지나매 세상사는 나날이 달나가고 도라오는 겹운은 쉬지아니하야 일이지장이 다시되매 심천리 넓은 땅에 낙토가 바이 업서……中略……성인은 두절하야 타향 심소흔 땅에쳐차가 괴갈을 이기지못하리니 천번 만번 헤아리다가 몸을드러 망망흔 파도우에 부치여 이 곳에 다다름이 었지 한양 목역산 아리에 일즉이 쫓하든 바이며……中略……이곳은 상년 동지달 초상에 이 곳에 리도하여 몸은 무고하고 혼는바는 주경 야독을 본 바들 싸름이요 이곳은 미국령디인디 통장의 리가 풍족함으로 로동싱 활 혼 자에 게 일터 취첩차라……中略……볼되기를 기다려 게아 남미를 다리고 이곳으로 오시면……中略……한봉이 장성함을 기다려 미국으로 향하야 공부를 가라쳐 오날 날 나의 뜻을 이어 국가에 한 직목이 되여 동포에게 돕는 힘이 잇게하면 조흥듯하오⁶¹⁾

김주사의 이민은 경제적인 동기도 있으나, 러·일전쟁이 직접 동기가 된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라는 점에서 당시 노동자나 빈민들이 주를 이루었던 하와이 노동이민과는 다소 구별된다.⁶²⁾

당시 하와이 勞動移民은 奴隸貿易에 준하는 것이었는데, 이 이민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로는 먼저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기근이 닥쳤는 데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한국 정부가 이민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³⁾ 마찬가지로 하와이의

61) 『韓國開化期文學叢書：新小説・翻案(譯)小説』第二卷(亞細亞文化社, 1978.), pp. 336-337 이후는 페이지 수만 표시하기로 함.

62) 이러한 政治的인 亡命移民을 다룬 작품은 「松嶺琴」보다 1년 후에 나온 李海朝의 「鴛鴦圖」(中央書館, 190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愛國啓蒙期的 國權回復運動을 그린 작품인데, 이민에 관한 내용은 끝 부분에 간략히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崔元植의 「李海朝 文學研究」(崔元植, 前掲書, pp. 99-105)를 참조할 것.

63) 하와이 이민이 개시되기 전해인 1901년에 한국에서는 계속되는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 노동자나 농민들이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는 民亂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를 수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는 당시 駐韓美公使인 알렌(Horace. Allen) 역시 한인들의 이민동기를 1901년의 '혹심한 가뭄 이후 한국의 관민들이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하와이 이민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한편 하와이 이민의 동기를 당시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던 開國進取運動의 소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서구의 문물에 눈뜬 구한말의 소수 지식층이 국민들에게 開國進取의 정신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은 1902년 당시 일반대중에게는 파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일반 대중의 머리속에 「禽獸國之」나 「洋夷」나 하는 1860년대 樂洋論者들의 對西洋觀이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참조 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下卷, 三和印刷株式會社, 1976, p. 795)

경우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값싼 아시아계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농장 경영층은 노동자층이 단일 종족이면 자신들에 대한 반란과 노동조건에 불평을 일으키기 쉬우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 주를 이루었던 중국이나 일본인 노동자를 대신 해 한인 이민을 추진했던 것이다.⁶⁴⁾ 이는 후에 거꾸로 한인의 계속적인 이민을 막는 구실로서 작용했다.

이민은 직접적으로는 駐韓美國公使인 알렌(Horace. Allen)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 알렌은 오하이오 주지사이자 맥킨리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조지 내쉬의 의붓 아들 데של러의 요청으로 공사가 된 인물로, 데של러는 日本 고오베(神戸)와 韓國의 仁川에 사업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⁶⁵⁾ 알렌의 이민 청탁은 당시 하층계급의 심각한 경제난의 해결책을 모색하던 고종의 의도와 마침 맞아 떨어져 하와이 노동이민을 성립시키게 된다.⁶⁶⁾ 당시 이민을 맡았던 東亞開發會社의 운영을 주관했던 인물이 바로 데של러(Deshler)였다.⁶⁷⁾

64) 참조 1) 玄圭煥, 上掲書, p. 794, 2) 高承濟, 前掲書, pp. 198-199

65) Bong-youn Choy, 「The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Korean Culture」, Vol. 3.No2 (1982. 7), p. 39(崔元植, 上掲論文, p. 266에서 再引用)

66) 이 점은 앞 절의 이주배경과 연관지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알렌의 청탁으로 거론된 것인지 아니면 한국정부내에서 이민국 설치가 거론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참조 玄圭煥, 前掲書, p. 797)

67) 「仁川府史」에는 그를 雲山鑛山會社의 仁川駐在員으로 기록하고 있다. (「仁川府史」, 1933, p. 488, 崔元植, 上掲論文, p. 266에서 再引用.) 그러나 호놀룰루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기록에 의하면 하와이 蔗糖栽培者協會長이 데של러를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에 東亞開發會社를 설치하고 데של러를 支配人에 임명하여 그냥 한국에 유입토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雲山鑛山會社의 駐韓職員名單에 데של러라는 이름이 없어 高承濟는 호놀룰루 日本領事館의 기록이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다. (高承濟, 前掲書, p. 209) 또 金元容의 『在美韓人五十年史』에는 1902년 5월 9일 협회가 노동자 모집을 위해 「데של러」라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여, 비송회장의 내한 사실엔 언급이 없으며 「仁川府史」(1933년 10월 발행)에는 한국인의 하와이 出稼는 在하와이 砂糖栽培業者의 의뢰에 의하여 東洋鑛山會社(雲山金鑛)在仁川港灣社員 미국인 데של러의 지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하와이」사탕재 배럴회 비송회장과 이민조약을 체결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정부문서나 신문 등 민간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구한국 외교문서에도 그가 내한했다는 1902년에 駐韓美國領事가 비송이라는 사람의 입국비자를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1902년에 데של러를 노동자 모집차 한국에 보냈다는 기록도 신빙성이 별로 없다.

어쨌거나 당시 이민회사들은 移民經費를 先貸해 주고 후에 이를 갚게 했다. 결국 경비는 각자 부담이라는 것인데 당시 임금조건이 하루 10시간 중노동에 한달 16불이었으니 이 선대제도는 한인들을 低賃金으로 오랫동안 농장에 묶어놓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奴隸勞動에 준하는 契約移民은 당시 不法이었다. 이 사실을 변연히 알고 있는 그들이 이민에 대단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詐欺라 할 것이다.⁶⁸⁾ 이들의 비참한 삶은 당시 이민들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다.

왜 고국을 떠나서 이국땅으로 이민했는가의 물음에 그녀는 “우리가 한국을 떠난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하고 간단히 대답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됐거당……中略……中略……

“일이 힘들었어요?”하고 물으니가 “힘들고말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었어서”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가난재기 그 포맨(감독)을 잊을 수 없어. 아니야 한국사람 아니야 불란서 사람이야…… 中略……그 사람 말이 우리는 게을러서 일을 잘 안한다”고 죽도록 일해도 감독 눈에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일을 더 빨리 하라는 거야. 사람인데 말모양으로 채독질을 하고 말을 타고 땡기면사……참 무식하고 나쁜 사람이었어.”⁶⁹⁾

당시 이민들은 작업시간에 게으름을 피우면 감독에게 「우뢰바」라 불리는 가축채

일련 駐韓美國公使가 1901년에 헤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일련의 보고서에 의하면 데셀러는 당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레이먼드 크롬이라는 미국인과 이해가 대립하여 크롬으로 부터 협박을 받아 1901년 8월 24일 일련공사에게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데셀러는 이미 1901년 8월 이전에 한국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일련 공사는 이 보고서에서 데이비드 W 데셀러는 오하이오 주지사 내쉬의 養子로서 재물포에 있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업가라고 찬양하고 있다. 데셀러는 당시 仁川에서 大是羅洋行을 경영하고 있었다. 하와이 이민조약을 체결한 기록이 없고 또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에 따라 이민사무를 전담하는 綏民院이 설립되었는 지는 명확치 않다. (玄圭煥, 前掲書, p. 796)

68) 당시 동아개발회사는 하와이의 실정을 소개하는 이민모집 선전문을 한국의 각 지방에 배포하여 보았으나 이민모집에 응해 오는 사람이 없자, 주로 이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소득’이라는 식으로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을 권고 했다. (玄圭煥, 上掲書, pp. 798-801)

69) 申星麗, 「하와이 사탕밭에 세월을 묻고」-韓國女性 北美 初期移民 實話, 「創作과 批評」, 1979, 봄, 創作과 批評社, pp. 280-281

적으로 사정없이 얻어 맞았고 작업중 잡담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자 역시 채찍세례를 받았다.⁷⁰⁾ 이러한 한인 이민들에 대한 대우는 알렌 주한 미국공사를 통해 '유순하고 길들이기가 쉬운' 민족이라는 식의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던 탓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와이에 도래하는 船費와 상륙비조로 받은 50불에 얽매어 2년간에 걸쳐서 한푼의 금료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일하기도 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근암과 우초가 안변군수를 질타하는 장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농업이야 아맛영성홀 터이지 롱민이 미국으로 가는것을 보던

(근)무식헌 빅성이 모로고 가지요 저희가 엇지 속너를 알고

(근)무슨 속너가 잇슴넛가

(근)미국놈이 사가는 것이지

(근)진실로 그러면 왜 금치 안이심넛가

(근)내가 권리가 잇소

(근)외부에 보고를 하시지요⁷²⁾

선전과 실재가 달랐기 때문에 세간의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1903년 10월에 綏民院을 폐지한 것이 이 때문⁷³⁾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정부의 財政難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⁷⁴⁾ 당시 이민들이 지독한 고통을

70) 玄圭煥, 前掲書, p. 812

71) 高承濟, 前掲書, p. 216

72) p. 371

73) 崔元植, 前掲論文, p. 269

74) 이는 1896년 대한 제국 시기에 전반적으로 反動的 성격이 強化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王室은 甲午改革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封建的 王室強化와 王朝體制를 強化시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개혁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조치의 하나가 國家財政의 경화를 내세운 王室財政의 강화였다. 1900년 이래 왕실재정이 급격히 증대된 반면, 국가재정은 위축되고 있었다. 당시 왕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세력의 축소를 강요받았던 바, 왕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주권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왕실은 정부와 다른 징세기구를 들으로써 농민과 지방관속들의 저항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왕실의 권한 강화는 일제의 정책적, 권력적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이에서 보듯이 왕실은 정부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관심을 두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당시 왕실이 국가를 생각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왕실 자체의 유지에만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조 박명규,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배경」-한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 2집, 「한국근대농촌사회와 일본 제국주의」, 文學과 知性社, 1986)

겪었음에도 하와이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살기가 좋다’고 한 증언을 왕왕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⁷⁵⁾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奴隸貿易인 바에야 금지시키는 것이 온당했을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금지시킬 수도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없어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이다. 綏民院이 폐지된 1903년 10월 11일 이후 移民保護法이 공포될 때까지 약 3년간은 外部가 이민업무를 관장했다.⁷⁶⁾ 하와이 이민은 오히려 이 시기에 본 궤도에 올라 1905년까지 지속되었다.

김주사 가족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민해서 자식들을 미국에서 가르쳐 “동포에게 돕는 힘”이 되고자 한다. 그의 이민이 경제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망명 이민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⁷⁷⁾ 그들 가족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고오베항에서 1차 신체검사를 받는데 계속이 안질로 불합격이 되어 혼자 치료를 위해 일본에 남게 되지만, “근리 본국 정부에서 리민 조례를 기초하논고로 반포전 리민이 못가게 되야 지금 기발회사가 각 지덤을 다 닷았고 예셔도 지금 스무를 정자” (p. 408) 한 바 이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1905년 4월 1일에 海外移民禁止令을 내린 것은 당시 멕시코 勞動移民의 참상이 조야에 알려져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설⁷⁸⁾과 함께 여러 설이 있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정부의 이해관계에 의거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⁷⁹⁾ 여기서 일본 정부가 취했던 이중적 행동은 자국 이민에 대한 협조·지원과 海外 反日韓人의 擴散防止라는 두가지 대립된 목적의 동시 수행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大陸植民會社가 하와이 이민의 중단때문에 받고 있었던 심각한 타격을 극복하

75) 申星麗, 前掲論文, p. 281

76) 玄圭煥, 前掲書, p. 805

77) 실제로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이민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었음은 유의영, 申星麗의 글에서 볼 수 있다. (참조 1) 申星麗, 前掲論文, 2) 유의영, 특집2: 해외동포 이민에서, 그 유랑의 세월-「아메리카 풍요를 좇아 산 고난의 90년」, 「역사비평」, 1991, 가을)

78) 崔元植은 舊韓末 知識人인 梅泉 黃玟의 말을 빌어(黃玟, 「梅泉野錄」卷之四 光武九年乙巳條, p. 334) 이를 주장하고 있는 데(崔元植, 「新小説과 勞動移民」, 前掲書, p. 272), 이는 당시 하와이 지사가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민금지령은 멕시코 이민이 인천을 출발하기 전인 1905년 4월 1일에 취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 동포가 학대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이민 금지령이 내린 후 몇 달 뒤의 일이다. (玄圭煥, 前掲書, pp. 805-806)

79) 첫째, 日帝의 주된 이민업무는 한인의 海外送出 보다는 이른바 在外 不逞鮮人의 동태사찰이었다. 따라서 反日的인 한인이 해외에서 늘지도 모를 우려가 작용했다는 점이다.

기 위해 한국 정부에 移民禁止令解除를 요청했고, 이 요청을 받자마자 한국정부가 다시 移民條例를 制定・公布한 데서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영사를 파견하여 이민을 보호할 적극책 대신 이민을 금함으로써 문제의 확대를 막으려는 소극책에서 이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⁸⁰⁾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이 시기 한국 정부의 행동은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철저히 시류에 끌려가는 정책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하와이 勞動移民의 실상을 일정하게 반영한 國內 最初の 소설이라는 점, 또한 親日的 성향으로 일관된 대다수의 新小説들에 비해 愛國啓蒙期 지식인의 삶을 통해 당시 역사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문학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東國詩界革命’의 일환으로 보이는 時調의 革新運動이라든가,⁸¹⁾ 비록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단선적인 서술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입한 편지왕래를 통한 사건의 전개방식은 새로운 서술 기법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둘째, 日本 移民會社의 意志, 즉 하와이에 일본이민의 경쟁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시 일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의 노동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셋째, 1903년-1905년의 러일전쟁때문에 일본인 노동자를 하와이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없었던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를 보충공급원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종전 후 보충공급원의 필요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한국정부의 조치가 이민회사의 강한 반발을 받아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넷째, 駐韓 日本外交官들이 이를 항의하고 이민 금지조치를 수 차례 요청한 것으로 보아 일본정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측은 표면상 이유로 ‘언어불통으로 顧客과 被顧客 간에 오해가 생겨 紛擾가 발생해도 해외이주민을 보호할 한국관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하와이의 일인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인이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에 설치한 통감부의 한국이민 관계문서에는 하와이 한국이민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일본의 이민회가 한국이민의 금지를 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한국정부의 이민금지령으로 인해 하와이의 일인 이민들이 그곳 노동계를 독점하는 형편이라는 기록, 한국노동자의 해외 도항금지는 적어도 하와이에 관한 한 일본이민의 경쟁자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유익했다는 분석등이 있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玄圭煥, 上揭書, pp. 805-807)

80) 崔元植, 「新小説과 勞動移民」(崔元植, 前掲書), p. 272

81) 이점에 대해서는 林榮澤, 「『東國詩界革命』과 그 의의」(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를 참조할 것.

李海朝의 「月下佳人」은 東學으로 몰락한 심진사 일가의 운명을 그린 작품으로 멕시코 이민의 실상을 최초로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근자에 연극으로, 소설로 나온 「애니깽」의 원조가 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崔元植이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이민부분에만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동학때 충주 목계 사람인 진사 심학서는 양주의 평구 역말로 피란하지만, 외가의 이사로 서울로 와 동리 학동들의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연명한다. 갑오경장으로 근대식 학교제도가 정비되자 심진사는 더욱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는 데, 동문수학 하던 친구 정운조에게서 멕시코 이민의 권유를 받는다.

(운) 허허참혹한 일일세어보게 그리 할 것 업시나와 又 치목서? 로건너? 세……中略……

(운) 자네 참음 속에 잇섯네기 발회사라 하 는 것이 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빈한한 사람 싱 슈 놀 주리 일세 목서? 디방에 진황디? 썩만 혼디 엇지 토옥 혼 지아 모곡식이던지 되로 심어 섬으로 추수 하 는 고로 지금 그나라 주 본? ? 제각기 거던 혼 금화를 드려 닷 호 아 기 척을 하 는 디 후 이 고 ? 를 주 고 로 동 주 를 모 집 하 는 고로 그 일 에 디 하 기 발 회사 라는 것을 설립 하 동 양 사 람 중 로 동 을 자 원 하 는 주 를 소개 하 네……中略……? 척을 하 디었? 우리나라 又 치 흠이 광이? 리 를? 지고 인력으로 생을 팔고 곡식을 손으로 삼고 손으로 베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동 일척을 모다 고 제로 하 는 디……中略……그 남 아 지 시 간 은 제 주 유로 공부 를 하 라 면 공부 도 하고……⁸²⁾

그 씨 에 기 발 회사 의 풍 설 을 들 고 한 입 걸 너 두 입 걸 너 엇 더 케 풍 설 이 썩 버 러 져 던 지 싱 황 에 곤 난 혼 사 람 들 과 성 정 이 허 욕 만 은 사 람 들 이 너 도 노 도 너 도 닷 토 아 들 어? 는 바 람 에……⁸⁴⁾

한국에서 멕시코 이민을 모집한 것은 하와이 이민을 처음 모집하던 것보다 2년 후인 1904년 12월의 일로, 존 G. 마이어스(John. G. Meryers)라는 영국인과 大陸殖民 合資會社를 경영하던 大庭貫一이라는 일본인의 합작에 의한 詐欺劇이었다. 마이어스는 멕시코의 농장주인들과 동양인 이민계약을 맺고 중국과 일본에 가서 이민을 모집하려다가 실패하고는 한국에서 이민을 모집하게 되었다.⁸⁵⁾ 大陸殖民 合資會社를 경영하던 大庭貫一은 이민모집을 위해 내한한 마이어스와 계약을 맺은

82) 『韓國開化期文學叢書：新小説・翻譯小説』第六卷，亞細亞文化社，1978，pp. 152-153 이후 페이지 수만 표시함.

83) p. 154

84) 玄圭煥，前掲書，p. 976

후 1904년 10월 15일부터 한국인 이준혁을 앞세우고 元山, 鎭南浦, 仁川, 釜山 등지에서 이민을 모았다. 12월 17일에는 「皇城新聞」의 3면 광고란에 이민모집광고를 실었으며, 이후 1905년 1월 13일까지 7차례 같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실었는데, 멕시코를 매우 살기 좋은 나라로 소개하고 있었다.⁸⁶⁾ 그 전에 하와이 이민이 선전되어 있었던 탓에 설명은 편리했다.

이민회사는 일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선전되어 있던 하와이로 이민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시상철 꽃이 피고 씨만 뿌리면 백곡이 풍능하고 하루 세시간만 품을 팔면 삼년만에 부자가 되는 「하와이」로 이민을 시켜 준다거나, ‘돈이 뒤굴뒤굴 굴러다니는 미국’에⁸⁷⁾ 이민을 시켜주기로 하고 멕시코에 이민을 시켰던 것이다. 석달 후인 1905년 7월 31일 「皇城新聞」은 論說에서 멕시코 이주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민이 관인의 탐학과 기만으로 유아가 밥을 찾고 약처가 울부짖어도 방법이 없어 세상의 낙토가 어디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던 끝에 사기꾼에 속아 살길이 열리는 줄로 알고 멕시코이민을 떠난 것이다.”

1904년 10월 15일부터 4개월 동안 6개 대리점을 통해 모집된 1033명의 멕시코 이민은 가족이민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⁸⁸⁾ 이들이 인천항을 출발한 것은 1905년 4월 초였다.⁸⁹⁾ 그들은 화물선을 타고 항해중 사망자를 내면서 1905년 5월 상순 멕시코의 서남부 살리나크루스 항구에 도착해 베라크루스까지⁹⁰⁾ 기차로 간 다음, 다시 배편으로 프로그레스소 항에 도착, 다시 기차편으로 유카탄(Yucatan) 주

85) 玄圭煥, 上揭書, p. 977

86) 玄圭煥, 上揭書, p. 978

87) 玄圭煥, 上揭書, p. 979

88) 金元容의 「在美韓人五十年史」에는 1905년 3월 6일이라고 하고 있고 「仁川府史」의 이민관계 통감부 문서는 4월 4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皇城新聞」 1905년 4월 4일자에는 출발 일자가 4월 2일임을 전하고 있다. 또한 「京鄉新聞」 윤여후기자는 「美洲移民70年」이란 기사에서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출발했을 것이라 한다. (참조, 玄圭煥, 上揭書, p. 979)

89) 여기서 이민들이 요꼬하마(橫濱)를 거쳐 베라크루스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기록에 대한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金元容의 「在美韓人五十年史」는 이민들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英商船 엘보트(EI Boat) 호로 바꾸어 탔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이민 1세들은 仁川을 떠난 배가 멕시코의 살리나크루스항에 도착할 때까지 한번도 다른 항구에 기항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참조, 玄圭煥, 上揭書, p. 979)

의 수도인 메리다(Merida) 시에 도착했다. 이들은 ‘섭씨 40도에 가까운 더위와 불처럼 뜨거운 태양 밑에서 며칠동안 창고같은 곳에 수용되었다가 ‘우마를 고르듯이⁹¹⁾ 어저귀 농장주에게 팔려 갔다. 뒤늦게 사태를 깨달은 동포들 중 10여명이 자살하고 또는 농장주에게 저항하다 매맞아 죽는 동포까지 생겨났다.⁹²⁾

그곳은아죽도문명진화(文明進化)가못다되야서인류를우마와갸치천하게더우히는악풍이그저였이는고로토인(土人)들이일반동양에서전녀간스름을전신에류혈이남자흐도록치족질을하야빠가빠지도록로동을식이며스름이츠마견디기어려운악한음식을쥬어만일피로히녀이고게으른빛이잇스면무지흔발과우악한주먹으로츠고짜리어모다죽을지경에이르렀스나…
…中略……곳은쌍을파고두겨운슈레를쓰러두손바닥이먹장가라부은듯하고두억기가뒤웅박갓치부은중임의곡괴를여러날쓴어괴력이시진하엿건만은스오스온먹가무셔워억지로괴동을하야종일토록로동을하다가밤이되리키자괴쳐소로도라오나물것도업고덥홀것도업는우마의외양만갓흔토굴속이라잠한잠자지를못하교쌍알으며자괴스덩을여러가지로싱각을한다.⁹³⁾

이들이 따는 어저귀는 잎에 밤송이같은 가시가 돋아 있어 온통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기가 일쑤였다.

또 감둑들은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강요하면서 결핍하면 체적으로 때려 몸이 피곤해도 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어저귀 한단(50잎)에 5전을 받아 이틀에 겨우 25전을 버는 셈이었는데, 그곳은 돼지고기값은 89전이였다. 당시 한국인의 실상을 전한 중국인 河惠는 이를 빗대어 ‘한국인의 가치가 猪肉보다도 오히려 값이 싼 편’이라고 통탄했다.⁹⁴⁾ 당시 이들의 노임으로는 식량을 사먹을 수조차 없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토굴 내지는 돼지 우리같은 움막이었는데 농장주는 출입마저 제한을 해 순경이 감시를 하게 했다. ‘토인이첫적을들고슈십명고용하는사름을아예데모양으로모라오는디기키히의복이남루하야드러온살을감초지못하교얼골에줄줄이씩가홀

90) 玄圭煥, 上揭書, p. 981

91) 「墨西哥에 在한 朝鮮同胞」(1), (2), 「東亞日報」, 1922. 8. 5~6, 崔元植, 前揭論文, p. 278
참조

92) p. 183

93) 玄圭煥, 上揭書, p. 981

리'(p. 189) 이들의 형상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진사의 친구 정윤조는 죽어간다.

몸슬뒀를미져가며힘에부치는로동을하다가하루는병이느셔누웠는디더몹슬주인놈이오
더니손목을쓰러너여큰노무가자에다등고랏케미달고자니질을엇더케하얏던지전신이성흔곳
이업시터져서류혈이낭자흔것을더고속에가도고물흔목음주자를아니하디나그날부터장독이
느셔멋칠을못살고인하야새상을바리엿는디……⁹⁴⁾

이를 두고 중국인 河惠는 멕시코인들이 5~6등의 노예로 대접받는 데 한인들은 7등의 노예가 되어 우마와 같이 '무릎을 꿇린채 구타당하며 살이 찢어지고 혈육이 횡란'하는 생활을 한다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한인들은 다시 붙들려 와 '몰에 적신 로프로 알몸을 때리는 형벌을 받았다.'⁹⁵⁾

목서가농막의악혼풍속에제일가통흔자는고용중일을실패못하흔자는말아나듯는말이나
소모양으로습시로미질을하야가며부리다가당할슈업스면금전을받고다른농막에다팔면신주
인이또흔전주인모양으로부리는디형어나금전을모으면몸갑하야속량을하야갈싸의심하야
백가지로금전저축을저회하흔고로여러천명의동양사람이무뢰비외쇄임을듯고그곳에와서중
신토록토인의노예노릇을하다가신세를맞친디경이라⁹⁶⁾

이 작품에서 멕시코 이민의 실상을 제대로 다룬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심진사는 같은 중국인 노동자 왕대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도망친다. 실제로 당시 멕시코 한인의 처지를 알린 것은 역시 노동이민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河惠에 의해서이다. 메리다 시에 살고 있던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申泰圭를 위시한 한국인들에게 이를 편지를 통해 알렸고, 이들은 다시 멕시코 이민들에 관한 기사가 실린 중국신문 「文興日報」를 서울 尙洞 예수교청년회로 보냈다. 이 청년회는 이를 다시 「皇城新聞」에 기고하여 멕시코 이민의 실상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다. 이로 부터 4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는 이를 목격한 인삼장수 朴永淳이 12월 17일에

94) p. 190

95) 玄圭煥, 上揭書, p. 982

96) p. 187

「北美韓人共立協會」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다.⁹⁸⁾ 상동교회는 서거 鄭淳萬에게 이를 「皇城新聞」에 기고토록 하고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정부는 이에 멕시코 정부에 이민을 보호해달라는 전문을 보냈고 일본공사 林權助에게 멕시코 정부가 이민들을 보호해 주도록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당시 外部協辦 尹致昊에게 하와이·멕시코이민의 정형을 시찰하도록 했으나, 그는 여비부족으로 하와이에만 갔다가 돌아 온다. 이후 한국정부는 이민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않았고 멕시코 정부도 사실무근이란 답신을 보낸다.⁹⁹⁾ 이를 국내에 알린 상동교회도 李範壽·朴章鉉 등 자체조사단을 파견했으나 이민들의 실상을 시찰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돌아오고 말았다.¹⁰⁰⁾ 당시 한국정부는 乙巳條約의 체결로 外交權을 박탈당한 탓도 있지만 이를 사전에 알고도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터진 사건에도 역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海外移民은 멕시코 사건을 계기로 때마침 日帝의 海外不逞鮮人 防止政策과 결합하여 禁止된다.

1909년 5월 12일 4년간의 계약만으로 멕시코 이민들은 농장에서 해방되었지만, 농장주의 행패로 경제적 곤란은 여전하였다.¹⁰⁰⁾ 이들은 미국 한인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회 「메리다」지부를 설치하고 하와이로 이주를 계획하지만 실패한다. 이들 중 일부는 1901년 5월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에서 지도자 에밀리아노 사빠타(E. Zapata)나 혹은 판초 빌라의 부대에 가담하게 된다. 이들은 훗날 멕시코 남쪽의 과테말라를 무력으로 전복하려다 실패한다. 그 후 멕시코의 한인들은 계속 농장에서 일하거나 행상을 하면서 생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21년 3월 초에 288명이 쿠바로 집단이주를 했다. 이 쿠바이주는 쿠바의 마나티 농장에 노동자 4백명을

97) 崔元植은 金元容의 저서를 인용해서, 멕시코 이민의 실상이 朴永淳이 共立協會로 연락해 미국에 알려지고 共立協會는 다시 申泰圭를 통해 이를 알렸다고 하면서 朴永淳의 편지가 金元容의 책에는 1905년 11월으로 되어 있지만 국내 신문기사로 보면 8월로 보아야 한다 했다. 하지만, 朴永淳이 公立協會에 이를 알린 것과, 河惠가 유학생을 통해 서울 尚洞教會에 알린 것과는 서로 다른 경로라고 보여진다. 河惠와 朴永淳의 전달 사이에는 4달의 상거가 있고 또한 河惠의 기사는 「皇城新聞」 1905년 7월에 이미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1) 崔元植, 前揭論文, pp. 278-279, 2) 玄圭煥, 上揭書, pp. 981-983)

98) 玄圭煥, 上揭書, p. 985

99) 玄圭煥, 上揭書, p. 986

100) 농장주들은 해방될 때 주기로 했던 1백 폐소의 상여금은 주지도 않았고, 농장에서 자란 아이들 중의 자식이나 농장에서 수년간 일을 시킨 뒤 보내겠다고 하여 잡아가두는 일도 있었다. (玄圭煥, 上揭書, p. 991)

모집해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한 이해영이란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 졌지만,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¹⁰¹⁾

李鍾鳴의 「倫落한 사람들」은 현대소설에서는 드물게 南美 브라질 이민의 실상을 다룬 작품이다.

‘나는 아편쟁이인 이복형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수년 전 수재로 촉망받던 형은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해외로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청한다. 아버지의 거절을 계모탓이라 비난해 돈을 받은 형은 형수와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간다.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상심해 그 때부터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형에게 돈을 부쳐 준 관계로 집안은 점점 더 소원해진다. 간신히 전문학교에 입학한 나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자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원이 된다. 뜻하지 않게 형을 만난 나는 그가 아편밀수를 하다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해 왔으며, 지금은 아편·알콜 중독자가 된 것을 알게 된다. 형은 형수를 핑계로 해서 내게 돈을 타 생활한다.

브라질 이민은 1960년대에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정부당국의 뒷받침을 받아 신천지를 개척한다고 떠난 것이 공식적인 시초이다. 그 이전에는 日帝時代에 日本人들에 끼여 건너간 李重昶·金壽祚·張昇浩 등 10여명과 6·25동란때 건너간 反共捕虜였던 金明福, 李奉獵 등 49명이 있다. 이들은 당시 日本人으로 행세했으며 그 수는 많지 않았다.¹⁰²⁾

앞서 멕시코 奴隸移民을 주선했던 마이어스가 1910년까지 이민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면 그가 이민사업을 통해 상당한 돈을 벌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그 이외에도 다수의 日人들이 한국에 이민회사를 다투어 설립한 것을 보면 이 당시에 中南美의 이민사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사업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이어스를 도와 이민을 모집했던 大庭貫一과 日向輝武 등 일본인 18명이 1907년 4월 2일 大韓殖民 合資會社를 설립한 데 이어 그 해 7월 3일에는 韓國移民 合資會社가 농상공부로 부터 멕시코 이민영업 허가를 받았다.¹⁰³⁾ 이로부터 일개월 만인 8월 7일에는 농상공부가 이민보호법에 의해 대한 이민주식회사 발기인 福島宜三의 8명에게 페루 남부지방으로 출항하는 이민취급 영업을 허가했다.¹⁰⁴⁾

101) 참조 玄圭煥, 上揭書, pp. 995-1002

102) 玄圭煥, 前揭書, p. 1010

103) 玄圭煥, 上揭書, p. 987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멕시코 이외에도 南美地方에 어느 정도의 이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시기를 지나 1920년대 후반에 브라질 이민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어 주목할 만 하다.

晩吾生은 「南米移民論者들에게」라는 글에서 ‘近者南米뿐라질移民熱을高潮하는者지못만’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일부 사람들이 한인들이 滿洲나 시베리아로 유리하는 것을 보다 못해 이들을 인도하고자 한 까닭에서 발생한 것이라 했다. 그는 브라질 이민을 위해서는 한 가족이 최소한 천원이라는 거금을 가져야 하는데 이 돈이면 한국에서 ‘足히自作農의地位를保障할수가잇’는 돈이라 하면서 현재 流離하는 동포들이 그 정도가 되면 무엇때문에 이주하겠는가를 반문한다. 따라서 그러한 방도는 아무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沒落期에迫한封建的資閥의煩悶을달하는것이아니면一種의意識的錯覺’이며 그러한 ‘消極的逃避生活의運動’은 어의를가든지決코成功’할 수 없다고 공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⁵⁾ 이러한 지적은 이 작품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을 간 ‘나’의 형은 대학 수재였으며 큰 포목점을 경영해 상당한 부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결심한 것이다.

그날밤에는 웬일인지 술이잔씩취해야도라와서 아버지외어머니를보고 자기에게만원만 주실것갔흐면 해외에나가서 한번돈을모아보겠노라고말했섯다.¹⁰⁶⁾

사실형님이 「뿌라질 로써난후에도 수차돈을부쳐달나는편지를비더보고 아버지는집안 사람들 아지못하게돈을부쳐준모양이였다.¹⁰⁷⁾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작품의 이민이란 것이 절박한 실정에서 해외로 流離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지역의 이민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시의 브라질 이민의 모습을 제대로 형상화했더라면 이 시기 해외 이민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주 동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또 작자의 목소

104) 玄圭煥, 上揭書, p. 988

105) 晩吾生, 「時事評壇」-南米移民論者들에게-, 『朝鮮之光』, 1927. 10, pp. 22-23

106) 李鍾鳴, 「倫落한 사람들」(『文藝公論』, 1929. 6, p. 31 이후 부터는 페이지 수만 표시함.

107) pp. 31-32

리를 화자의 그것에 그대로 주입하는 등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결합을 보여 주고 있다.

韓黑鵬의 「移民日記」(「白光」, 1937. 6)는 미주이민의 삶을 일기체로 쓴 소설이다.

3년 전인 1917년에 '나'의 가족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미국으로 돈벌러 이민을 오지만, 나와 아버지는 농사일만 한다. 나의 가족들은 이 곳의 동포들의 사친결혼과 가족의 미국화 현상, 그리고 미국의 동양인에 대한 차별 등과 같은 사건들을 겪는다.

이 작품에서 '나'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미국의 '부유함'에 대한 부러움이다.

돈많은 미국. 천당같은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넓은 새대륙에는 돈과 행복이 쌓여 있다고 하면서 저마다 저마다 건너 온다는 통에 아부님도이놈의 미국땅을 밟아 들어 왔다. ……中略……소학교 선생노릇이 어렵고 월급쟁이 생활이 귀찮다고……미국에 가면 산덤이 같은 황금덩저리를 얻을듯이 꿈꾸면서 건너오신 아부님도 캘리포니아의 무더운태양벌아래에서 하루 종일 포도송이나 따시게되고¹⁰⁸⁾

당시 국내에서 미국은 '부자나라이며 거리에 황금이 깔린 나라'¹⁰⁹⁾ 내지는 '자유 천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하와이 이민시절 초기부터 이민회사들이 미국에 대해 과장선전을 한 탓이었다. 이렇게 그릇된 소문은 멀리 퍼져 나갔고 이를 그대로 믿은 이들은 '낮선 외국에 가서 중노동으로 돈을 벌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기 전에 한목잡아 보겠다는 꿈에 부풀'¹¹⁰⁾어 이민을 했지만, 실재는 달로 듣던 바와는 엄청나게 딴 판이었던 것이다. 나의 표현처럼 아버지는 '소학교 선생노릇이 어렵고 월급쟁이 생활이 귀찮'아서 식솔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 가족이 이민을 온 1917년 당시를 보면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은 차치하고라도 지식인들 역시 거의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등유민'의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이들 일가는 괜찮은 편에 속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일가 역시 생활고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108) 韓黑鵬, 「移民日記」, 「白光」, 1937. 6, pp. 147-148

109) 申星麗, 前掲論文, p. 275

110) 玄圭煥, 前掲書, p. 814

은 경우라 할 수 있다.

1905년에서 1907년에 이르기까지 1003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의 蔗糖栽培園을 탈출하여 캘리포니아 지방으로 갔는데, 이들은 마침 그 지방에서 새로 전개된 米作農園의 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한인의 對美移民의 기원이 되며,¹¹¹⁾ 이들은 후에 이 지역에서 벼농사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¹¹²⁾ 이 지역은 쌀 농사 이외에도 미국에서 포도가 제일 많이 나는 곳으로 사철 포도농사가 되는 곳이었다. 당시 이 곳에서 苦學을 했던 유학생 流淸의 말을 빌면 포도 한 송이 따는데 1센트를 받았으며, 그 곳에는 한국인촌과 한국인 노동자 숙박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³⁾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포들의 사진결혼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제코보다도 더크고 주먹 보다도 코가 더큰 서양색시를 얻어다놓고 밤낮 할터주고
쓸어주는朴첨지가 얼마나 웃어운지

그래도 십년이나 노동해서 땀흘리며 벌은돈을 그코큰 색시한테 다없이 하였대드라.
어데서 온 여자인지도 잘 물으지만.

……中略……

그러나 李첨지공보는 나이가五十이나 되었는데두 고향에서 어여쁜 색시를 얻어 왔
대지.

들이나 다른 젊은 사람의 사진을 보내어서 사진결혼으로 색시를 다리어 왔다드라. 이
것도 우서워도 웃지 못할 일이다.

와서 보니 땀사람이요늙은이요 나이 二十년이나 우에되는 늙은 신랑이지만 하는수
가 있나!

배에서 나리여놓으면 갈데 울데 없이 살아야했지.

미국이 좋고, 돈 많다고 사진결혼으로 식집은 새악사들. 암만 울면 쓸데가 있나
그래도 이해들만 잘났드라.¹¹⁴⁾

111) 高承濟, 前掲書, pp. 217-218

112) 某氏談, 「米·布·墨同胞의 近況」, 『東光』, 1932. 3, p. 26 일례로 캘리포니아 리틀리지역에서는 김형순, 김호 형제가 농산물 도매상으로 크게 성공해 많은 한인 유학생들과 농업 노동자들을 도왔다. (유의영, 前掲論文, p. 236)

113) 流淸, 「北美에 苦學五年間」, 『東光』, 1926. 10, pp. 44-48 참조

114) 韓黑鵲, 「移民日記」(『白光』), 1937. 6), pp. 149-150 이후부터는 페이지 수만 표시함.

원래 이 사진결혼은 하와이에서 농장주들의 이해관계에서 발단이 되었다. 그들은 노동이민들의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을 장려했다. 그러나, 하와이에는 동양여자가 적어 국제결혼밖에는 길이 없었는데, 백인들은 동양인과의 결혼을 반대했고 이민들도 언어·습관이 다른 백인여자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다. 여기서 본국여자와 사진교환으로 결혼에 이르는 사진결혼이 생기게 되었다.¹¹⁵⁾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1066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사진결혼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¹¹⁶⁾ 이 사진결혼은 미주에 이민간 남자가 본국의 처녀에게 사진을 보내어 선을 보인 후에 시집가기를 원하는 처녀를 데려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신부가 결혼을 승락하면 신랑은 신부의 여비로 2백달러를 보냈다. 1924년까지 영남출신의 신부 951명이 하와이로, 또 상해를 거친 북한출신신부 105명이 미 본토로 건너갔다.¹¹⁷⁾ 미국정부도 마지못해 사진결혼하는 동양여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하였다. 당시 사진결혼의 윤택 못할 실상에 대해 미국을 방문했던 한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예전에 한창 寫眞結婚할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慶尚道 색사가, 米國의 獨特한 藝術로 만든 훌륭한 寫眞만 보고, 내 남편이 이렇게 잘생긴 젊은이거니하고 잔뜩 믿고 太平洋을 건너왔다가, 정작 埠頭에 내리고보니, 新郎이라고 자기 손을 붙잡으려는 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살이 잔뜩 있는 늙은이었다. 그때에 크게 失望하고 분한 신부, 잡으려는 老新郎의 손을 뿌리치고 책 돌아서면서……¹¹⁸⁾

위에서 보듯이 '사진부인'들은 남편과의 나이 면에서 20~30살까지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¹¹⁹⁾ 이들 중에는 남편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인텔리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들 중 다수가 농장노동을 청산하고 도시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진부인들이 온 후 초기 이민사회는 활기를 띄었고 수는 작지만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교회, 부인회, 대한 여자에국단 등의 활동을 통해 자녀교육,

115) 희곡쪽에서 이와 대응되는 사건을 다룬 작품이 尹白南의 戲曲인 「運命」(新舊書林, 1924. 12, 彰文社, 1930. 10)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참조 1) 徐淵昊, 「韓國近代戲曲史研究」(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4, p. 78), 2) 柳敏榮, 「韓國現代戲曲史」(弘盛社, 1982, pp. 105-116)

116) 유익영, 前掲論文, p. 235

117) 玄圭煥, 前掲書, p. 817

118) 田榮澤, 「無情大陸 往來記-在米生活 回想錄」, 「白光」, 1937. 1, pp. 69-70

119) 一記者, 「하와이에 사는 六千同胞의 實況」, 「開闢」, 1923. 6, p. 33

구제사업,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¹²⁰⁾

나가 온지 수 년 후부터 동양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된다.

더구나 작년부터는 동양이민법안(東洋移民法案)이니 배일법안(排日法案)이니 사법이 생기어서 동양사람의 권리는 모다 없어 졌으니.

동양에서 오는 이민들을 금하고 시민권(市民權)이 없는 이민들에게는 사유재산(私所有財産)을 등록할 수 없이 만들었으니 점점 미국도 지옥으로 변하는 모양이지.¹²¹⁾

1924년 5월 15일 東洋人 絶對排斥法案이 통과되어 동양인의 이민이 금지되었으며, 1913년과 1920년에 제정된 외국인 토지법은 아시아인들이 농사지을 땅을 사거나 주택을 사는 것을 불법화하였다.¹²²⁾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같이 많은 법적·제도적 차별은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원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여기다 가족의 변화는 더욱 이민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졸업 후 뉴욕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인과 결혼한 ‘나’의 여동생은 5년동안에 완전한 미국인이 되어 한번도 부모를 찾아 오지 않는다. 여기서 보듯이 이민 1세대들은 자기들끼리의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은 잘했지만 이를 2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은 실패했다. 많은 2세대들이 타민족과 결혼을 해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민족공동체를 떠났다.¹²³⁾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 작품은 교사의 아들로 ‘중학’을 졸업해 그래도 배운 계층에 속하는 ‘나’의 눈에 비친 이민생활을 일기체로 묘사한 것이다. 일기체인 탓으로 이민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화제를 다양하게 담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사물에 대한 관찰을 넘두리처럼 표현하고 있어 내용의 전개가 상당히 느슨해지는 약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다른 이민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거나 냉정한 관찰자로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보다는 다소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있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화제들도 일상의 화제로 떨어져 버리며 절박한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고국에 대한 향수·타국에 대한 이질감만을

120) 유의영, 前揭論文, p. 235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은 申星麗의 前揭論文을 참조할 것.

121) pp. 150-151

122) 유의영, 前揭論文, p. 235

123) 유의영, 上揭論文, p. 237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이들 가족의 이민동기에서 부터 벌써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5. 結 論

본고는 지금까지 日帝 強占期 流移民 小說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대 한국인들의 삶을 살펴 보고자 했으며, 그 중 특히 시베리아 지역과 美洲 地域 移民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다룬 작품들은 그 편 수에서 日本 勞動移民을 다룬 작품들이나 滿洲 流移民을 다룬 작품들에 비해 극히 적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그것조차도 다소의 한계를 지니고 있긴 했지만 現代小說 보다는 新小說에서 좀 더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먼저 2장에서는 國內外의 流移民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日帝 強占期の 社會・經濟的 요인과 연결지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시베리아 지역과 美洲지역의 유이민들의 모습을 당대의 사회사와 연결지어 살펴 보고 그 작품들이 지닌 의미를 짚어 보았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베리아 流移民을 다룬 작품의 경우 먼저 작품 내외적으로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巢鶴嶺」은 이민의 삶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親日的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平凡」의 경우는 政治的 移民의 실상을 그리고 있지만, 주제의 동기화 및 구성상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露領近海」의 경우는 歷史意識의 심각한 결핍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비한다면 「그 刹那」같은 작품은 勞動移民의 삶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소품인 관계로 이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하는 데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꺼래이」는 앞서의 작품들에 비해 당시 시베리아 농업이민의 삶을 그들이 처한 당대의 역사적 환경과 연관지어 뛰어나게 형상화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美洲 流移民을 다룬 경우는 그들의 다양한 면모를 그리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鴛鴦圖」의 경우 논지와 맞지 않아 제외했으나, 하와이의 政治的 亡命移民을 그리고 있었고, 「月下佳人」의 경우는 멕시코의 奴隸移民을, 그리고 「倫落한 사람들」은 브라질 이민을 그리고 있었다. 또한 「松籟琴」은 노예무역에 준하는 하와이 勞動移民을, 「移民日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하와이 이민을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은 각기 한계를 갖고 있었다. 「月下佳人」

의 경우 노예이민의 실상을 정확히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서 通俗小說로 떨어져 그 의의를 반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倫落한 사람들」은 주제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구성상 심각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移民日記」의 경우 하와이 이민들의 생활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긴 했지만, 상당히 느슨한 구성으로 일관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松籍琴」은 新小說이면서도 親日의 性向을 보여주는 작품들과는 달리 愛國啓蒙期 한 지식인 일가의 정치·경제적 이유에 의한 勞動移民의 실상을 제시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시베리아·美洲 양 지역을 다룬 작품들은 그 편수가 적기도 하거니와 의의면에 있어서도 그 중 불과 몇 작품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작품 발굴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인 바, 다음의 과제로 미룬다.

參 考 文 獻

- 姜恩海, 「日帝強占期 亡命地文學과 地下文學」, 『西江語文』第 3輯, 1983. 10
- 金允植, 「모더니즘의 精神史的 基盤」, 『文學과 知性』, 1977. 겨울
- 金台俊, 「李朝末의 民怨詩」-漢詩만으로-, 『學燈』, 1934. 8
- 김해옥, 「이효석의 短篇小說의 抒情的 特質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4
- 나병철, 「이효석의 서정소설 연구」, 『연세어문학』제 20집, 1987
- 서경석, 「韓雪野論」: 한국 경향소설과 '귀향'의 의미, 김운식의, 「한국 근대리얼리즘 작가 연구」, 文學과 知性社, 1988
- 徐淵昊, 「韓國近代戲曲史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4
- 성범중, 「이계 홍양호의 북새문학에 대한 일고찰」, 『冠嶽語文研究』3輯,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4
- 柳敏榮, 「韓國現代戲曲史」, 弘盛社, 1982
- 尹永川, 「韓國의 流民詩」, 실천문학사, 1987
- 林燮澤, 「抗日 民族詩」 『大同文化研究』第 14輯, 成均館大學校, 1981. 6
- 林燮澤, 「『東國詩界革命』과 그 의의」, 『韓國文學史의 視覺』, 創作과 批評社, 1984
- 鄭明煥, 「위장된 순응주의」, 『創作과 批評』, 1968. 겨울

- 崔時漢, 「망명지소설 「남강의 가을」 연구」, 「배달말」 9집, 배달말 학회, 1984
- 崔元植, 「新小說과 勞動移民」, 仁荷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 10輯, 1984
- 崔元植, 「李海朝文學研究」, 崔元植, 「韓國近代小說史論」, 創作社, 1986
- 김석준, 「동양척식회사의 사업 전개 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근대 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文學과 知性社, 1986
- 김영근, 「1920년대 노동자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 金雲泰, 「日帝 植民地 統治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6卷, 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 金潤煥, 「朝鮮勞動運動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6卷, 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 문소정, 「일제하 농촌 가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 문소정, 「대한 제국이 일본인 대지주의 형성」,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文學과 知性社, 1986
- 문운걸, 「일제초기 임금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정과 그 존재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노동계급 형성이론과 한국사회」, 文學과 知性社, 1990
- 박명규,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文學과 知性社, 1986
- 朴永錫, 「海外獨立運動史」 2(滿洲, 露領地域) 「韓國現代文化史大系」 8卷, 文化運動·民族抗爭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사회발전연구회, 「한국노동자 계급론」, 한울출판사, 1986
- 손보기, 「海外獨立運動史」 3(歐·美地域) 「韓國現代文化史大系」 8卷, 文化運動·民族抗爭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 윤수중, 「일제하 일본인 지주회사의 농장 경영 분석」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 이형찬, 「1920-1930년대 한국인의 만주 이민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 姜萬吉, 「日帝時代 貧民生活史研究」, 創作社, 1987
- 고송무지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음,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 실천, 1990
-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章文閣, 1973
- 金俊燁·金昌順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1권 청계연구소, 1987
- 서대숙 역음, 이서구 옮김,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태암, 1989
- 蘇在英 編, 「間島 流浪 40년」, 朝鮮日報社, 1989
- 宇野淑子著·고계영譯, 「사할린」, 宇石, 1991
- 玄圭煥, 「韓國流移民史」, 語文閣, 1967
- 林炳哲, 「朝鮮農村은 이것을 要求한다」, 「東光」 1932. 8
- 崔光模, 「朝鮮農民은 왜 파멸하는가?」, 「農民」, 1930. 7
- 龍江學人, 「北米의 大學生活」, 「新生」, 1930. 10
- 晚吾生, 「時事評壇-南米移民論者들에게-」, 「朝鮮之光」, 1927. 10
- 某氏談, 「米·布·墨 同胞의 近況」, 「東光」, 1932. 3
- 梁夏葉, 「布哇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事情」, 「新天地」, 1923. 8
- 申星麗, 「하와이 사탕밭에 세월을 묻고-韓國女性 北美 初期移民 實話」, 「創作과 批評」, 1979. 봄
- 呂運弘, 「移民法업스면 布哇로」, 「三千里」, 1932. 10
- 유의영, 「아메리카 풍요를 좇아 산 고난의 90년」, 「역사비평」, 1991, 가을-특집 2, 해외동포 이민애사 그 유랑의 세월-
- 流 晴, 「北美에 苦學五年間」, 「東光」, 1926. 10
- 李東濟, 「在米一萬同胞의 近況」, 「彗星」, 1931. 5
- 一記者, 「「하와이」에 사는 六千同胞의 實況」, 「開闢」, 1923. 6
- 任英彬, 「스켓취(渡美途中에서)」, 「東光」, 1926. 6
- 任英彬, 「三等船室(스켓취2)」, 「東光」, 1926. 8
- 任英彬, 「호놀룰루의 하로(渡米스켓취)」, 「東光」, 1926. 9
- 任英彬, 「移民局 行次(스켓취6)」, 「東光」, 1926. 10
- 任英彬, 「짐자동차에 실려서」, 「東光」, 1926. 11
- 田榮澤, 「無情大陸 往來記-在米生活 回想錄」, 「白光」, 1937. 1
- 朱耀燮, 「米國의 思想界와 在米朝鮮人」, 「別乾坤」, 1928. 12
- 포왜생, 「포왜의 夏」, 「開闢」, 1923. 8
- 韓黑鷗, 「「하와이」의 朝鮮人部落」, 「四海公論」, 1938. 7

- _____, 「布哇團 移民事件(外報)」,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7. 6
- 金西三, 「露西亞放浪記」(1), (2), 「朝光」, 1936. 1, 2
- 金成龍, 「四面子の 夫婦旅行」(니콜리스크여행), 「開闢」, 1922. 11
- 金永鍵, 「西伯利亞와 朝鮮의 移民」, 「春秋」, 1941. 9
- 스제반 김,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와 잃어버린 모국어」, 「역사비평」, 1990. 봄
- 申基碩, 「朝鮮人の 極東露領移住來歷」, 「朝光」, 1936. 12
- 그들은 언제무엇때문에 故土를 떠났나? —
- 연국희, 「소련-중앙아시아 강제이주의 수난사」, 「역사비평」, 1991. 가을
- 특집 2, 해외동포 이민애사, 그 유랑의 세월-
- W. 코라르즈 李碩崐譯, 「在쑤련 韓國人들의 生態」, 「思想界」, 1958. 3
- 「勞農 러시아의 朝鮮人에 대한 土地分配規定」, 「東亞日報」, 1928. 2. 25
- 李克魯, 「西伯利亞에서 머슴사리」, 「朝光」, 1936. 4
- 李晶燮, 「世界風雲과 在歐, 露同胞」, 「東光」, 1932. 3
- 韓龍雲, 「西伯利亞에 移農」, 「三千里」, 1932. 10
- 「海參威에 있는 同胞의 農事狀況」, 「朝鮮之光」, 1927. 10
-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한국어대사전」, 삼성문화사, 1986
- 白信愛, 「꺼래이」(金潤植 편, 「꺼래이」, 朝鮮日報社, 1987)
- 崔曙海, 「그 刹那」, 「時代日報」, 1926. 1. 4
- 韓雪野, 「平凡」, 「東亞日報」, 1926. 2. 16~2. 27
- 韓雪野, 「平凡」, 「東亞日報」, 1926. 2. 16~2. 27
- 李孝石, 「露領近海」, 「四海公論」, 1937. 2
- 韓黑鷗, 「移民日記」, 「白光」, 1937. 6
- 鍾 鳴, 「倫落한 사람들」, 「文藝公論」, 1929. 6.
- 陸定修, 「松籟琴」(「韓國開化期文學叢書: 新小説・翻譯(譯)小説」第2卷, 亞世亞文化社, 1978)
- 李海朝, 「月下佳人」(「韓國開化期文學叢書: 新小説・翻譯(譯)小説」第6卷, 亞世亞文化社, 1978)